



2011년 10월 19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 투자전략

어느 똑똑한 파리 이야기

## • 이머징마켓 동향

성장 둔화 우려로 중화권 증시 급락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액트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9종목

## • 산업분석

통신서비스, 유통

## • 스몰캡분석

2011 KRX IR EXPO 참관기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10/11(화)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10/18(화)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1,795.02 | 1,809.50 | 1,823.10 | 1,835.40 | 1,865.18 | 1,838.90 |
|      | 등락폭         | 28.58    | 14.48    | 13.60    | 12.30    | 29.78    | -26.28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633(15)  | 505(17)  | 600(15)  | 641(6)   | 210(7)   |
|      |             | 하락(하한)   | 215(0)   | 323(1)   | 437(1)   | 192(3)   | 642(1)   |
|      | ADR         | 93.86    | 98.19    | 110.50   | 109.66   | 108.20   | 106.56   |
|      | 이격도         | 10 일     | 103.15   | 103.54   | 103.73   | 104.04   | 105.15   |
|      |             | 20 일     | 101.87   | 102.70   | 103.25   | 103.77   | 105.38   |
|      | 투자심리        | 70       | 70       | 80       | 80       | 80       | 80       |
|      | 거래량 (백만 주)  | 394      | 347      | 425      | 345      | 363      | 314      |
|      | 거래대금 (십억 원) | 7,031    | 5,591    | 6,530    | 4,991    | 5,842    | 5,659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459.06   | 467.65   | 473.56   | 473.89   | 485.38   | 483.43   |
|      | 등락폭         | 5.15     | 8.59     | 5.91     | 0.33     | 11.49    | -1.95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665(34)  | 628(29)  | 691(40)  | 463(28)  | 678(31)  |
|      |             | 하락(하한)   | 297(3)   | 312(3)   | 272(5)   | 477(5)   | 274(0)   |
|      | ADR         | 101.31   | 106.30   | 119.75   | 119.75   | 117.09   | 116.27   |
|      | 이격도         | 10 일     | 104.22   | 105.35   | 105.75   | 105.10   | 106.80   |
|      |             | 20 일     | 102.14   | 104.09   | 105.16   | 105.01   | 107.35   |
|      | 투자심리        | 80       | 80       | 80       | 80       | 80       | 80       |
|      | 거래량 (백만 주)  | 672      | 607      | 612      | 549      | 588      | 629      |
|      | 거래대금 (십억 원) | 2,712    | 3,035    | 2,847    | 3,318    | 3,097    | 3,771    |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증권)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종기금)   | 기 타      |
|------|---------|----------|----------|---------|---------|----------|----------|---------|----------|---------|----------|
| 유가증권 | 매수      | 3,500.9  | 721.4    | 1,234.0 | 200.4   | 163.7    | 414.7    | 43.4    | 47.9     | 363.7   | 249.4    |
|      | 매도      | 3,288.6  | 902.7    | 1,251.2 | 186.4   | 196.6    | 552.7    | 67.4    | 35.5     | 212.6   | 263.0    |
|      | 순매수     | 212.3    | -181.3   | -17.2   | 14.0    | -32.8    | -138.0   | -24.0   | 12.5     | 151.1   | -13.7    |
|      | 10 월 누계 | -2,041.0 | 526.8    | 1,266.7 | -172.3  | 74.1     | 64.9     | 32.9    | -8.8     | 1,275.7 | 247.5    |
|      | 11 년 누계 | 1,687.6  | -6,205.5 | 5,813.2 | 1,381.4 | -1,353.1 | -3,381.4 | 1,702.2 | -1,806.9 | 9,271.0 | -1,295.3 |
| 코스닥  | 매수      | 3,605.1  | 48.0     | 125.7   | 14.6    | 17.5     | 50.2     | 5.9     | 4.0      | 33.5    | 28.5     |
|      | 매도      | 3,548.6  | 120.5    | 110.0   | 7.6     | 17.2     | 58.7     | 6.6     | 2.8      | 17.1    | 28.3     |
|      | 순매수     | 56.5     | -72.5    | 15.8    | 7.0     | 0.3      | -8.5     | -0.8    | 1.2      | 16.4    | 0.2      |
|      | 10 월 누계 | 313.3    | -257.2   | -41.4   | -5.6    | 8.9      | -114.8   | 18.8    | -21.1    | 72.4    | -14.7    |
|      | 11 년 누계 | 127.6    | -730.9   | 913.6   | 113.9   | 272.0    | 96.7     | 143.2   | -139.2   | 427.1   | -310.3   |

## 어느 똑똑한 파리 이야기

|            |               |
|------------|---------------|
| 10월 월간 밴드  | 1,700-1,900pt |
| 2011 연간 밴드 | 1,650-2,150pt |
| 12MF PER   | 8.6배          |
| 12MF PBR   | 1.10배         |
| Yield Gap  | 8.2%P         |

- ▶ 똑똑한 파리 이야기
- ▶ 2008년 3월 이후 흐름과 유사한 10월 증시를 설명하는 표면적인 논리, 그리고 직관
- ▶ 지나친 확신은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를 암시한다

### ■ ‘똑똑한 파리’는 과연 똑똑한 것일까?

어느 낡은 집에 커다란 거미가 살았다. 이 거미는 아주 아름다운 거미집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파리들을 잡아먹었다. 내려앉은 파리가 거미줄에 엉켜들면 거미는 냉큼 다가가서 파리를 삼켰다. 그렇게 해야 또 다른 파리가 거미집을 봤을 때 참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라는 생각에 잠시 쉬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법 똑똑한 파리가 거미집 주변에서 뽕뽕거리기만 하고 좀처럼 내려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거미가 나가서 말을 걸었다. “어서 내려와.”

그러나 그런 얄은 수에 넘어가기엔 그 파리는 똑똑했다. “나는 다른 파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절대로 앉지 않는다. 너희 집엔 파리들이 한 마리도 없어.”

파리는 그곳을 떠나 정말 많은 파리들이 몰려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파리가 그 사이에 내려 앉으려는데 벌 한 마리가 웅웅대며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기다려, 이 바보야! 그건 파리 잡는 끈끈이란 말이야. 이 파리들은 모두 붙잡혀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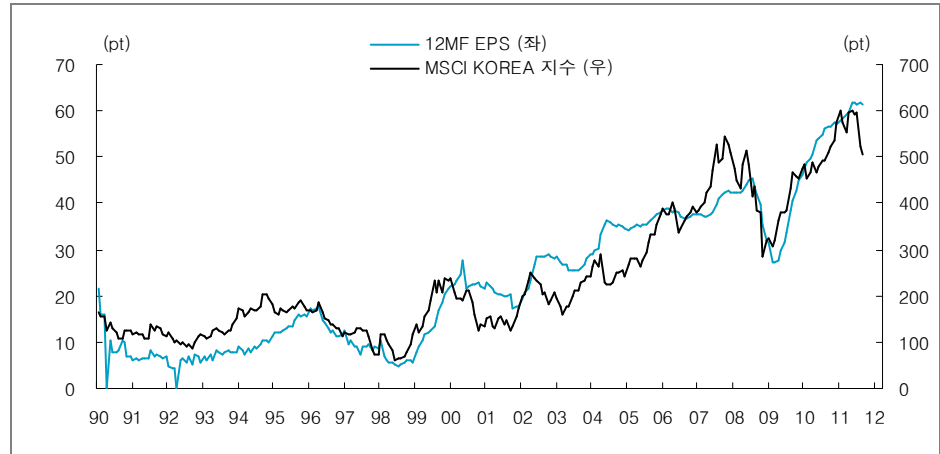
“너야말로 바보 같은 소리하지마!” 파리가 말했다. “재네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리곤 끈끈이에 찰싹 달라붙었다.

위 이야기는 제임스 서버의 ‘똑똑한 파리’ 이야기이다. ‘똑똑한 파리’는 군중들이 솔깃해 하는 것이면 뭐든지 같이 부화뇌동하는 헛똑똑이의 전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2008년 3월 베어스틴스 파산이후 20% 이상 반등이 나왔던 때와 비슷한 흐름이 올해 10월에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고 우리의 예상이 현재까지 맞아 떨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주장한 KOSPI 상승의 논리는 유럽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정책 특히 EFSF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익의 하락 보다 주가의 하락이 더 크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그림 1] 이익의 하락보다 주가의 하락이 더 크다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내면적으로 기대한 KOSPI 상승은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 가깝다. 주식을 채워 넣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전개될 선진국 경기 둔화를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리적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수의 행동이라는 점이다. 물론 위험을 줄여서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따라서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를 헛똑똑이의 전형이라고도 절대 말할 수 없다.

다만 중장기 추세가 비록 횡보하거나 앞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남아있더라도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지나쳐 이것이 집단의 컨센서스가 되는 경우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 본 내용은 중앙일보 '김정훈의 투자ABC'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성장 둔화 우려로 중화권 증시 급락

- ▶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9.1% 기록, 시장 예상치 하회, 수출 경기 급락 우려 확산
- ▶ 초상은행 주주배정 증자 및 신화인수 IPO 등으로 수급 우려 지속
- ▶ 상해증시 2.3%, 홍콩 H지수 5.2% 급락, 시멘트, 금속, 해운 등 업종 급락세

상해증시 큰 폭 반락  
2,400p선 하회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큰 폭으로 반락해 2,400p선을 하회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다.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9.1%를 기록한 가운데 초상은행의 350억위안 주주배정 증자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됐다. GDP 외에 9월 소비, 생산, 투자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수출 경기 급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됐다. 거래대금 규모는 직전일보다 약 20% 증가한 693억위안을 기록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고 그 가운데 시멘트, 비철금속, 철강 등 경기민감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조선, 은행 및 양조 관련주는 강세로 마감했고 농업관련 재정지출 확대 소식과 클라우드 컴퓨팅 1차 정부 지원금 집행 소식으로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다. 한편 중국수전(中國水電)은 상장 첫날 17% 이상 급등했다.

H지수 하루 만에 급락  
전 업종 하락

### ■ 홍콩 시장

H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다. 유럽 해법에 대한 기대감 약화와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하락 개장한 지수는 중국 경제 성장률 시장 예상치 하회 및 본토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로 장 중 내림세를 지속했고 5.2% 급락한 9,340p로 마감했다.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및 철도건설투자 감소, 수출경기 악화 우려로 건설주, 건설자재 및 해운주가 10% 가까이 급락했다. 자동차, 은행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 구 분        | 10/18(화)  | 전일 대비(%) | 5거래일 전 대비(%) | 1개월 전 대비(%) | 연초 대비(%) |
|------------|-----------|----------|--------------|-------------|----------|
| 중국 상해종합    | 2,383.49  | -2.33    | 1.49         | 1.03        | -15.12   |
| 홍콩 H       | 9,340.43  | -5.21    | 0.90         | 4.74        | -26.41   |
| 인도 SENSEX  | 16,686.95 | -1.99    | 0.91         | 1.42        | -18.64   |
| 러시아 RTS    | 1,401.99  | -1.77    | 3.45         | 4.54        | -20.80   |
| 브라질 보베스파   | 53,911.33 | -2.03    | 5.21         | 3.03        | -22.21   |
| 베트남 VN     | 404.32    | -1.59    | -3.21        | -5.44       | -16.58   |
| MSCI 이머징마켓 | 941.02    | 0.59     | 3.47         | 6.88        | -18.27   |

주: 18일 오후 6시 10분 기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종목/테마   | 내 용  |
|---|--|
| <b>현대엘리베이(017800)</b><br><b>▶177,500원(+7.58%)</b> | <b>초고속 승강기 기술력이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초고속도시건축학회(CTBUH) 2011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초고속 승강기 기술을 소개했다는 소식에 기술력이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li> <li>-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일반적인 사항 및 동사의 더블테크 엘리베이터에 대한 최신 기술을 소개해 순수 국내 승강기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됨</li> </ul>                            |
| <b>SBS(034120)</b><br><b>▶41,300원(+7.27%)</b>     | <b>실적 호조 전망에 신고가 경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시장 호조 및 드라마 경쟁력이 높아 외형 성장성이 개선됨에 따라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신고가 경신</li> <li>- 저작권법 통과 이후 방송콘텐츠의 유료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됨</li> </ul>  |
| <b>유니더스(044480)</b><br><b>▶1,370원(상한가)</b>        | <b>‘슈퍼성병’ 출현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에서 기존 항생제 ‘세팔로스포린’에 대한 완벽한 내성을 지닌 ‘H041’이라는 이름의 치료 불능 슈퍼 임질균 발견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li> <li>- 동사는 콘돔 1위업체로서 슈퍼 성병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됨에 따라 예방차원의 콘돔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li> </ul>                               |
| <b>게임주</b>  | <b>게임전시회 ‘G-SRAR’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10일 ‘차기 성장 모멘텀’인 신작 게임을 공개하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개최 기대감에 강세</li> <li>- 소프트맥스(052190, +10.14%), JCE(067000, +6.46%), 조이맥스(101730, +6.23%), 이스트소프트(047560, +5.71%), 와이디온라인(052770, +2.56%) 등 강세</li> </ul>               |
| <b>와이브로주</b>                                      | <b>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동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본격 착수 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대감에 강세</li> <li>- IHQ(003560, +6.19%), 인스프리트(073130, +5.18%), 아이크래프트(052460, +4.55%), 서화정보통신(033790, +3.52%), SBS콘텐츠허브(033790, +2.76%) 등 강세</li> </ul>             |
| <b>의료기기주</b>                                      | <b>삼성전자가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가 지난달 한국과 미국, 유럽에 각각 ‘엑스지오’와 ‘삼성 엑스지오’라는 의료기기 전문 브랜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강세</li> <li>- 루트로닉(085370), 뷰웍스(100120, 이상 상한가),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11.06%), 테라젠이텍스(066700, +5.72%), 오스템임플란트(048260, +5.26%) 등 강세</li> </ul> |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액트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                |  |      |      |     |     |      |
|----------------|--|------|------|-----|-----|------|
| 액트<br>(131400) | 올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2배 이상 충분히 달성 가능. 3분기 매출액은 196억원(YoY +19.5%),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6억원(YoY +62.5%) 이상으로 예상   |      |      |     |     |      |
|                | 전년도 주요 고객이었던 LG전자 휴대폰 패널용 FPCB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에 중소형 LCD 모듈용 FPCB(LG디스플레이향), 터치스크린 모듈용 FPCB(하이디스, 태양기전향), LED TV용 FPCB(우리LED향) 납품에 집중                                 |      |      |     |     |      |
|                | 매출처 다변화로 LG그룹향 매출 비중은 전년도 75%, 올해 반기 기준 68%로 낮아졌고, 연말 기준으로는 60%까지 축소될 전망. 하이디스, 태양기전, 우리LED, 팬텍 등 기존에 비해 마진을 높은 매출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OPM은 전년도 7%에서 올해 13%까지 달성 가능할 전망 |      |      |     |     |      |
|                | (원, 십억원, 배)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 2010. 12A  | 67.2 | 4.7  | 4.8 | 393 | 10.4 |
|                | 2011. 12F  | 75.0 | 9.8  | 8.3 | 550 | 4.6  |

(단위: 원, %)

| 종 목<br>(코 드)        | 현재가<br>(수익률)      | 편입가<br>(편입일자)    | 투자 포인트   |
|---------------------|-------------------|------------------|--|
| 차이나킹<br>(900120)    | 2,870<br>(+12.1)  | 2,560<br>(1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 브랜드로 향후 성장의 발판이 될 영생활력이 4분기(3~6월)의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며 안정권에 진입</li> <li>- 동충하초 유통과 원강 및 영생활력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종의 건강기능차를 출시해 신규 매출 기대</li> <li>- 2012년 예상 EPS 기준 PER은 2.5배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li> </ul>                                   |
| 오스템임플란트<br>(048260) | 10,000<br>(+23.5) | 8,100<br>(1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임플란트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내수시장 점유율 회복과 작년 하반기 출시한 TS모델(단가 10% 인상)의 판매 호조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전망</li> <li>-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이 40억원 이상 발생해 3분기 순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li> <li>- 미국, 중국, 대만을 비롯해 14개 해외법인의 올해 매출이 700억원(+28% YoY) 이상으로 전망</li> </ul> |
| 에스엘<br>(005850)     | 27,500<br>(+14.6) | 24,000<br>(9/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드램프 국내 1위 업체로 현대/기아차 생산량 증가로 성장세 지속</li> <li>- 헤드램프 고사양화에 따른 수혜와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사업 확대 기대</li> <li>-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
| 플랜티넷<br>(075130)    | 5,990<br>(+33.1)  | 4,500<br>(9/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 예상 배당금이 3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이 6% 상회</li> <li>- 내년 판교 유스페이스 SPC(97억원 출자)에서 100억원~130억원의 특별배당을 받을 경우 2012년 EPS 증가율은 194%에 달할 전망</li> <li>- 2011년 기준 PBR 0.6배로 저평가된 자산주로서 알바트로스(상장예정 티브이로직 투자), 투비피엔씨(이수근 '술집') 등 계열사의 성장성 기대</li> </ul>                       |
| 이녹스<br>(088390)     | 14,000<br>(+32.1) | 10,600<br>(9/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업체들의 경쟁적인 스마트기기 출시로 우호적인 영업환경 지속</li> <li>- 높은 진입장벽, FPCB 업체들의 가동률 회복 등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예상</li> <li>- 반도체 소재 사업 진출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성장동력 마련</li> </ul>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액트, 오스템임플란트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액트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차이나킹하이웨이에서 실시한 중국 현지 공장 방문 및 기업설명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9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                     |   |      |      |      |       |     |
|---------------------|---|------|------|------|-------|-----|
| 영원무역홀딩스<br>(009970) | 아웃도어 의류시장의 급성장세를 감안할 때 비상장 자회사인 골드원코리아(지분율 51%, North Face 브랜드 보유)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 |      |      |      |       |     |
|                     | 상장 자회사인 영원무역(지분율 50%)도 우호적인 시장환경, 환율상승 효과 등으로 견고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      |       |     |
|                     | 10월 현재 시가총액은 영원무역 지분가치만을 반영한 수준으로, 여타 패션주들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될 가능성 충분                |      |      |      |       |     |
|                     | (원, 십억원, 배)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 2010. 12A   | 83.8 | 77.7 | 75.4 | 6,984 | 5.2 |
|                     | 2011. 12F   | 96.5 | 87.1 | 84.7 | 7,847 | 5.5 |

### 편입제외 종목: KT&G(차익 실현, +14.9%)

(단위: 원, %, 십억 원, 배)

| 편입종목<br>(코드)        | 현재가<br>(수익률)       | 편입가<br>(편입일자)     | 2011년 추정실적  |         |         |        |      |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현대중공업<br>(009540)   | 290,000<br>(+4.1)  | 278,500<br>(9/29) | 25,117.9  | 3,047.9 | 3,229.5 | 52,693 | 5.5  |
|                     |                    |                   | -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화와 비조선 부문의 수주 모멘텀을 주목.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         |        |      |
| 기아차<br>(000270)     | 71,400<br>(-0.7)   | 71,900<br>(9/29)  | 26,754.3  | 2,042.4 | 3,712.4 | 9,158  | 7.8  |
|                     |                    |                   | - 신형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         |         |        |      |
| 일진디스플레이<br>(020760) | 9,930<br>(+26.7)   | 7,840<br>(9/29)   | 341.2   | 41.4    | 40.1    | 1,280  | 7.8  |
|                     |                    |                   | - 삼성전자 내 터치패널 공급업체 중 중대형 터치스크 부문에서 경쟁우위 확보<br>- 갤럭시탭2 출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등으로 3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         |         |        |      |
| 풍산<br>(103140)      | 30,800<br>(+21.3)  | 25,400<br>(9/26)  | 2,599.0   | 190.2   | 177.4   | 6,333  | 4.9  |
|                     |                    |                   | -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둔화를 감안해도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 방산 매출 증가에 따른 4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 기대 유효  |         |         |        |      |
| 대한항공<br>(003490)    | 48,500<br>(+12.1)  | 43,250<br>(9/23)  | 12,494.1  | 753.7   | 305.9   | 4,442  | 10.9 |
|                     |                    |                   | - 국제선 여객 및 환승 수요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br>- 화물부문의 경쟁 우위와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  |         |         |        |      |
| S&T대우<br>(064960)   | 33,450<br>(-1.3)   | 33,900<br>(8/24)  | 776.5   | 60.1    | 68.6    | 4,693  | 7.1  |
|                     |                    |                   | - 한국GM 및 GM Global의 판매 회복 및 현대차/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를 강세 지속, 방산사업 매출 본격화에 따른 하반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                                     |         |         |        |      |
| 웅진생크빅<br>(095720)   | 16,200<br>(-15.0)  | 19,050<br>(8/22)  | 838.1   | 74.6    | 54.0    | 2,115  | 7.7  |
|                     |                    |                   | - 하반기 학습지, 영어학원 사업의 성장 및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될 전망<br>- 웅진패스원(지분율 62%) 상장 및 배당주 매력(배당수익률 6.4%)도 긍정적                      |         |         |        |      |
| 에스원<br>(012750)     | 54,600<br>(+0.2)   | 54,500<br>(8/19)  | 942.4   | 146.6   | 123.3   | 3,658  | 14.9 |
|                     |                    |                   | - 시스템 가입자 증가 및 ARPU 개선, 자회사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br>- 중국법인 설립은 내수 중심의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성장이 가능한 중국 보안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 |         |         |        |      |
| NHN<br>(035420)     | 246,000<br>(+31.9) | 186,500<br>(8/19) | 2,105.2   | 659.7   | 500.9   | 11,245 | 21.9 |
|                     |                    |                   | - 검색광고 매출 성장 및 클릭수 증가, 모바일 검색 광고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         |         |        |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중공업, 기아차, 대한항공, NHN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가 주사부설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의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통신서비스: 플랫폼은 분할, 망은 통합해 기업가치 상승

### ■ 통합 일변도에서 플랫폼을 분할하는 추세로 전환

지난 15년간 주요 기간통신업체는 업체간 합병을 지속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 08년까지는 유선통신업체간 또는 무선통신업체간 합병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가입자기반 확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투자비,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09년 이후 KT그룹과 LG그룹이 유선과 무선업체를 통합했고 이러한 네트워크간 합병은 SK그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11년 10월 SK텔레콤이 플랫폼사업을 분할하면서 그간의 통합 추세에 반대되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끼리는 통합하고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분할하는 것이다.

### ■ 플랫폼 분할로 기업가치 상승

통신업체가 네트워크 사업과 플랫폼 및 신성장 사업을 분할하는 것은 1) 규제 회피, 2) 성장 동력 확보, 3)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성이 높은 플랫폼사업을 규제가 없는 영역으로 분리해 육성하면 가치가 증진될 것이다. 수익성이 호전되는 데다 플랫폼에 대한 시장 평가가 네트워크보다 높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의 순이익률이 2%p 상승하면 SK텔레콤의 적정주가는 11,394원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플랫폼 가치평가 시 기존 SK텔레콤의 목표 PER 8.7배 대신 플랫폼 업종의 PER 20배를 적용하면 SK텔레콤의 적정주가는 25,750원 상승하게 된다.

### ■ SK그룹은 플랫폼 분할로, KT는 자회사를 통해 비통신사업 육성

SK텔레콤은 10월에 분할한 자회사 SK플래닛의 출범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다. T map, T store, 11번가, 뉴미디어, 복합유통 이매진 등 플랫폼사업의 분할로 성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평가가 높아져 기업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타사 가입자에 플랫폼을 개방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구조개편과 맞물려 대변혁이 예상된다. 미디어 사업은 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고객(B2C)은 SK텔레콤 고객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동사는 기업사업(B2B)과 네트워크 운용 전문회사로 남아 SK텔레콤과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 KT는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비통신 자회사를 통해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BC카드, KT렌탈, 나스미디어 등 자회사의 성장성이 높다.

### ■ 통신업종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돌보여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8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통신주가 시장 대비 outperform하고 있다. 통신주는 매력적인 valuation(PER 7배)과 배당 메리트(배당수익률 6%)로 경제위기에 강한 투자 중목이다. Top pick은 SK텔레콤과 KT다. SK텔레콤과 KT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22,000원(목표 PER 8.6배), 54,000원(목표 PER 10.6배)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유통: 낮아지는 매출신장률

### ■ 다시 한번 낮아진 매출신장률

주요 유통업체들의 9월 매출동향이 발표되었다. 연초 백화점 14% YoY, 할인점 4% YoY의 기존점신장률에서 5월 이후 백화점 8% YoY, 할인점 3% YoY 수준이 유지되다가 9월에는 백화점 6.5% YoY, 할인점 -1.1% YoY로 낮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백화점은 명품과 아동/스포츠 부문에서 두자리수 신장률을 나타냈으며, 남성의류(+4.1% YoY), 여성정장(+2.9% YoY), 가정용품(+6.4% YoY)은 부진했다. 할인점은 가전, 가정/생활, 잡화 부문이 역신장을 나타냈으며, 스포츠 부문은 16.8% YoY 늘어났다.

### ■ 위축된 소비심리가 주요 요인

유통업계에서 지목한 부진 요인은 소비심리 위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구매건수가 감소’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인용), 실제 8월, 9월 소비심리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백화점 구매건수는 8월, 9월 각각 -2.4% YoY, -1.0% YoY, 할인점 구매건수는 각각 -0.6% YoY, -2.1% YoY를 기록했다.

### ■ 4분기 소매매출신장률은 3분기보다도 낮아질 전망

우리가 추정하는 4분기 백화점의 기존점매출신장률은 4% YoY이다. 위축되는 소비심리, 줄어드는 wealth effect, 지난 수개월간 지속되어 온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요 요인이다. 소비심리는 2010년 110 수준에서 1Q11 104, 2Q11 102를 기록해오다가 8~9월에는 99로 떨어졌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초기에는 객단가 상승효과를 가져오면서 매출(명목)신장률에 도움을 주지만,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된다. 종합주가지수, 주택가격지수로 파악한 wealth effect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연초와 같은 높은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 ■ 유통업종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은 상황, valuation 매력 높은 종목에 집중

절대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종의 시장대비 프리미엄은 유지되고 있다. 매출신장률의 기울기는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통업종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valuation 매력이 높은 롯데쇼핑(023530), 신세계(004170)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각각 2012F 지배주주순익의 8.1배, 8.7배(삼성생명 지분가치 제거한 시가총액 기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할인점 부문 실적 개선, 늘어나는 영업면적 등의 요인으로 실적 개선폭도 양호한 수준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2011 KRX IR EXPO 참관기

: 한국거래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KRX EXPO를 개최하였다. 당사는 EXPO 참가 기업들 중 20개 업체와 1:1 미팅을 가졌다.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였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차이나킹(900120): GMP인증 획득으로 경쟁력 강화

코라오홀딩스(900140):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지속

삼영이엔씨(065570): 내년 매출 500억원 돌파 무난할 전망,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

인포피아(036220): 올해 20%대의 성장 무난, 인원 총원 및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전망

유비벨룩스(089850): 스마트카드(USIM)에서 스마트폰(앱), 스마트카(모젠)까지 확장한 ‘스마트’한 기업

메가스터디(072870): 오프라인 학원의 고성장 및 자회사의 활약으로 성장세 이어갈 전망

중국식품포장(900060): 고객사와 동반한 설비투자로 중국 내 3 piece 시장 장악의 기반을 마련하다

광진원텍(090150): 따뜻한 시트와 핸들이 절실한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필요한 월동아이템

원익쿼츠(074600): 본업이 끝나고, 신규 사업이 밀고

엘엠에스(073110): 프리즘시트 시장 지배력 강화 + AMOLED 소재 등 신사업 주목

이노칩(080420): 스마트폰 시장 성장으로 실적에 날개 달다

로만손(026040): 해외 진출에 한 발 다가서다

모두투어(080160): PER은 상장 이래 최저 수준

하나투어(039130): 당분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

세운메디칼(100700): 항균 카테터 등 고부가 신제품의 매출 성장 기대

넥스트칩(092600): 카메라 칩 패키지의 정상 가동 여부가 관건

에스텍파마(041910):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2012년 매출 역시 30% 이상 성장할 전망

코미팜(041960):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

우진(105840): 전방위적인 계측기 수요 증가 추세는 내년에도 유효할 전망

KTcs(058850): 보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

차별화된 생산 설비와  
기술력은 동사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

**차이나킹(900120): GMP인증 획득으로 경쟁력 강화**

- 중국 전통 중약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식품 기업으로 사업은 건강식품(매출 비중 76%)과 동충하초 유통(매출 비중 24%)으로 구분
- 2011.06 실적(6월 결산 법인): 매출액 1,132백만RMB(+55% YoY), 영업이익 486백만 RMB(+44% YoY), 순이익 335백만RMB(+32% YoY) 기록. 동충하초 유통으로 신규 매출이 발생했고, 작년 10월 출시한 신규 브랜드 영생활력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
- 2012.06 실적: 매출액 1,400백만RMB(+24% YoY), 영업이익 616백만RMB(+27% YoY) 전망. 동충하초 유통과 원강 및 영생활력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는 10월 18종의 건강기능차를 출시, 신규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
- 10월 8일 복건성 최초로 생산시설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을 획득해 경쟁력 강화. 향후 출시되는 신제품에는 정부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판매
- 중국의 식품 안전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강기능 식품 시장의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별화된 생산 설비와 기술력은 중장기적으로 동사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 매출액<br>(백만<br>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06A | 729.7              | 43.7       | 327.5               | 35.5       | 248.0              | 37.9       | 4.0          | 4.1        | -          | 24.1       | -                | 15.3        |
| 2011.06A | 1,132.8            | 55.2       | 485.5               | 44.1       | 335.0              | 35.1       | 4.2          | 3.5        | -          | 25.0       | -                | 12.6        |
| 2012.06F | 1,400.0            | 23.6       | 616.0               | 26.9       | 431.2              | 28.7       | 5.4          | 3.0        |            |            |                  |             |
| 2011.03A | 275.2              | -          | 92.3                | -          | 63.3               | -          |              |            |            |            |                  |             |
| 2011.06A | 313.5              | 41.2       | 172.7               | 44.8       | 118.6              | 33.5       |              |            |            |            |                  |             |

주1) 2012.06 실적은 당사 추정치 기준

주2) 외화환산 시 적용한 원/CNY 환율: 10년 6월 말 178.04, 2011년 6월 말 168.88, 11년 10월 16일 180.37

주3) 적용 환율 차이와 반올림 등으로 사업보고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40%대 고성장 지속,  
투자매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

**코라오홀딩스(900140):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지속**

- 핵심 자회사인 코라오 디벨로핑은 라오스 자동차 유통 1위 업체로 매출은 신차 48%, 중고차 29%, 오토바이 16%, 부품 및 AS 7% 등으로 구성(상반기 기준)
- 라오스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7%,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은 32%로 추정
- 2011년 실적 가이드스: 매출 150백만달러(+44% YoY), 영업이익률 12.5%, 순이익 20백만달러(+30% YoY)로 상반기 실적(매출 76백만달러, 영업이익률 12.4%, 순이익 10백만달러)과 매출 및 이익률 기여가 높은 신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원화환산 시 실적 개선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
- 1) 라오스 인근 국가로의 시장 확장을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고, 2) 추가 투자금액 없이 기존 판매망을 이용한 신 사업을 모색하는 등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 유효. 2012년에도 40%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매출액<br>(백만<br>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104.2              | 39.5       | 15.5                | 31.3       | 15.5               | 33.3       | 0.5          | 9.8        | 2.6        | 23.3       | -                | 6.5         |
| 2011F   | 150.1              | 44.0       | 18.8                | 21.3       | 20.1               | 29.7       | 0.5          | 13.9       | -          | -          | -                | -           |
| 2012F   | 210.1              | 40.0       | -                   | -          | -                  | -          |              |            |            |            |                  |             |
| 2011.1Q | 35.3               | -          | 4.8                 | -          | 4.9                | -          |              |            |            |            |                  |             |
| 2011.2Q | 37.2               | -          | 4.7                 | -          | 4.8                | -          |              |            |            |            |                  |             |

주1) 외화환산 시 적용한 원/달러 환율: 10년 말 1,138.9, 11년 10월 16일 1,151.0

주2) 적용 환율 차이와 반올림 등으로 사업보고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주3)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경기에 부침 없는  
안정적인 실적을 고려하면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

**삼영이앤씨(065570): 내년 매출 500억원 돌파 무난할 전망,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

- 국내 유일의 해상전자통신장비 토탈 솔루션 업체로 해상통신장비, 항해장비, 방산장비 등을 생산
- 2010년 기준 매출비중은 항해장비 37%, 해상통신장비 35%, 방산장비 9%, 기타장비 18% 등이며 수출 비중은 51%
-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116억원으로 추정
- 올해 매출은 460억원으로 사상최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수출이 통관에 차질을 빚으며 기존 전망치인 480억원에서 20억원 하향 조정
- 원활한 통관과 A/S 등을 고려해 중국 현지화 검토 중
- 매출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순이익은 기존 추정치에서 크게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국내외 규제 강화로 수출 환경이 긍정적인 점과 신규 매출 등을 감안하면 내년 매출 500억원을 돌파 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전망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4.9배로 경기에 부침이 없는 안정적인 실적을 고려하면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

|         | 매출액<br>(백만<br>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41.2               | 6.5        | 9.8                 | (3.8)      | 7.8                | 0.3        | 941          | 6.7        | 1.3        | 18.2       | 4.5              | 22.0        |
| 2011F   | 46.0               | 11.7       | 11.2                | 14.0       | 9.5                | 21.4       | 1,143        | 4.9        | 1.1        | 19.0       | 3.5              | 18.8        |
| 2012F   | 51.5               | 12.0       | -                   | -          | -                  | -          |              |            |            |            |                  |             |
| 2010.1Q | 8.8                | 1.6        | 1.9                 | 0.7        | 1.3                | 8.6        |              |            |            |            |                  |             |
| 2010.2Q | 12.2               | 1.1        | 2.6                 | (22.2)     | 2.1                | (32.6)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당사 추정치 기준

인력 충원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률 하락 예상

**인포피아(036220): 올해 20%대의 성장 무난, 인원 충원 및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전망**

- 혈액진단 바이오센서 전문기업으로 휴대용 혈당 측정기, 병원용 HbA1c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을 생산
-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혈당 측정기 80%, 병원용 HbA1c 측정기 6%, 콜레스테롤 측정기 2% 등이며, 수출 비중은 92%
-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9억원(+10%YoY), 17억원(+6%YoY)으로 추정
- 2011년 실적: 매출 600억원(+20% YoY), 영업이익 130억원(+3% YoY), 순이익 100억원(+70% YoY) 전망
- 올해 성장은 혈당측정기가 주도하는 가운데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도 보탬이 될 전망. 다만 인력 충원(200명 → 250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재료비 상승, 이익률 낮은 상품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3%p 하락한 21%대로 예상
- 미국의 건강보험수가가 낮아져 major업체 대비 30% 이상 저렴한 동사의 혈당측정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효과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2012년 매출은 720억원(+20% YoY) 수준으로 전망

|         | 매출액<br>(백만<br>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50.1               | 27.7       | 12.6                | 24.8       | 5.9                | 2.7        | 801          | 17.0       | 1.6        | 10.4       | 7.6              | 39.5        |
| 2011F   | 60.0               | 19.7       | 13.0                | 3.5        | 10.0               | 70.1       | 1,358        | 10.1       | 1.4        | 15.5       | 7.4              | 33.9        |
| 2012F   | 72.0               | 20.0       | -                   | -          | -                  | -          |              |            |            |            |                  |             |
| 2011.1Q | 9.7                | 16.1       | 1.5                 | 4.5        | 0.8                | 189.3      |              |            |            |            |                  |             |
| 2011.2Q | 13.9               | 9.1        | 3.2                 | 8.3        | 1.5                | 2.2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당사 추정치 기준

하반기 NFC폰, 4G폰 관련 통신 스마트카드 모멘텀 기대, 스마트카 관련 매출은 내년부터 계상될 전망

**유비벨록스(089850): 스마트카드(USIM)에서 스마트폰(앱), 스마트카(모젠)까지 확장한 '스마트'한 기업**

- 금융, 통신, 교통 분야 IC칩/카드 공급(스마트카드 사업)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콘텐츠 공급(모바일 사업) 영위: 2010년 기준 스마트카드:모바일=6:4 비중으로 스마트카드 부문이 cash cow 역할을, 모바일이 star로서 신규 성장 모멘텀을 이끌고 있음
- 3분기 매출액 240억원(+14.8% YoY) 집계: 동사의 주요 고객인 SK텔레콤의 분사 영향으로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에 이연된 수익 인식, 플랫폼&솔루션 연말 집중 효과로 올해 컨센서스인 1,000억원(+24.5% YoY) 매출, 120억원(+8.1% YoY) 영업이익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
- 주요 투자 포인트: 1) 하반기 특히 4분기에 NFC칩 및 4G LTE 유심칩 등 통신 스마트카드 부문 신규 및 교체수요가 발생, 2) 내년 기존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더불어 스마트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 스마트카는 BMW, GM, 포드, 도요타 등 유수한 자동차업체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단순히 고객에게 추가적인 편의를 주는 시스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을 통한 서비스 고안 등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한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 매출액<br>(백만<br>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80.3               | 78.5       | 11.1                | 127.0      | 10.1               | 124.5      | 2,185        | 8.0        | 2.4        | 32.1       | 5.6              | 26.9        |
| 2011A   | 100.0              | 24.5       | 12.0                | 8.1        | -                  | -          | -            | -          | -          | -          | -                | -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1Q | 17.2               | NM         | 1.1                 | NM         | 1.1                | NM         | -            | -          | -          | -          | -                | -           |
| 2010.2Q | 26.3               | NM         | 3.7                 | NM         | 3.4                | NM         | -            | -          | -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오프라인 학원 및 자회사 성장 가속화로 온라인 시장 정체 국면 보완

**메가스터디(072870): 오프라인 학원의 고성장 및 자회사의 활약으로 성장세 이어갈 전망**

- 온/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온라인 강의교재 및 중고등부 참고서 발간), 메가엠디(의·치의전문대학원 입시), 형설에듀(오프라인 학원법인), 메가 F&S(직영학원 및 외부 단체급식 사업), 아이비김영(대학편입학 전문학원) 등을 자회사로 보유
- 3Q 매출액은 860억원(+12.4% YoY), 영업이익 312억(+5.1% YoY) 예상: 1) EBS의 대체효과 지속, 2) 수시지원 원서 접수기간이 겹쳐 수강일수 감소 영향, 3) 초·중·고·대 부문의 경쟁심화와 집중이수제 시행 영향이 작용하여 실적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예상치보다는 하회
- 양지 기숙학원 개원으로 고등부 오프라인 학원의 외형이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비용이 온라인보다 높아 매출기여도에 비해 이익기여도는 낮은 수준
- 2011년 상반기까지 지분법이익은 40억원 규모(vs 전년도에는 총 29억원 지분법 손실)로 올해 말 손익계산서상 효과가 반영될 전망
- 2011년 가이드스 매출액은 매출액 2,830억원, 영업이익 963억원 제시: 4분기가 부진한 계절성을 감안할 때(최근 2년 4Q 매출액 평균 비중은 20%, 영업이익 13%) 매출액은 가이드스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은 달성 가능성이 다소 낮아보임

|         | 매출액<br>(백만<br>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br>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245.8              | 3.1        | 81.1                | (4.0)      | 60.7               | (11.0)     | 9,731        | 18.1       | 3.7        | 23.5       | 7.4              | 24.0        |
| 2011A   | 283.0              | 15.1       | 96.3                | 17.9       | -                  | -          | -            | -          | -          | -          | -                | -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1Q | 71.5               | 13.1       | 23.9                | 7.4        | 19.9               | 10.3       | -            | -          | -          | -          | -                | -           |
| 2010.2Q | 64.7               | 17.5       | 21.2                | 9.0        | 16.4               | 4.2        | -            | -          | -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공격적 capex 확대로  
급증하는 중국 음료캔  
수요에 발빠른 대응 가능

중국식품포장(900060): 고객사와 동반한 설비투자로 중국 내 3 piece 시장 장악의 기반을 마련하다

- 3 piece 음료캔(주로 온음료, 건강음료 용기 vs 2 piece can-탄산음료) 제조기업을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홍콩소재 지주회사
- 1분기(2011.3~6) 실적: 매출액 323억원(+140.8% YoY), 영업이익 20억원(+93% YoY)으로 집계. 1) 외주 제작하는 인쇄/코팅 부문 가공비 부담과, 2)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위축,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3분기부터 실적 및 이익을 개선될 것으로 판단
- 현재 음료 및 제관업체의 생산능력은 중국내 음료산업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현재 동사는 증설을 추진중이며 2012년 기준 연 28억개 생산수준의 capex를 보유할 전망. 현재 중국내 M/S 1위인 CMPC가 연 25억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장 장악력을 갖추게 될 것
- 주요 원재료인 주석도금강판 가격이 상승추세이나 3개월마다 원가 변동물에 따라 납품가를 조정하므로 고객사에 100% 전가 가능한 구조로 원재료 리스크 노출도가 높지 않음
- 향후에도 매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 다만 공격적인 capex 증설로 회사의 성장속도보다 설비증설 속도가 큰 점, 제품 라인업이 호두/아몬드 음료용 캔에 집중되는 점은 리스크로 판단

|         | 매출액<br>(백만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RMB) | 증감률<br>(%) | 세전이익<br>(백만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RMB) | 증감률<br>(%) | EPS<br>(RMB) | ROE<br>(%) | 부채비율<br>(%) |
|---------|----------------|------------|-----------------|------------|-----------------|------------|----------------|------------|--------------|------------|-------------|
| 2009A   | 436.0          | 19.1       | 58.1            | 17.3       | 55.0            | 12.3       | 47.2           | 12.4       | 2.36         | 23.2       | 100.3       |
| 2010A   | 717.8          | 64.6       | 73.5            | 26.4       | 64.8            | 17.9       | 54.0           | 14.4       | 2.67         | 21.9       | 140.8       |
| 2011F   | -              | -          | -               | -          | -               | -          | -              | -          | -            | -          | -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2011.1Q | 193.5          | 141.0      | 10.8            | 92.5       | 7.4             | 57.8       | 5.1            | 23.2       |              |            |             |

주) 2010년 회계연도는 2010.4.1~2011.3.31까지/ 1Q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2011년 및 2012년 가이드스 미제시

발열핸들로 제품믹스 개선,  
통합ECU로 전방산업 확  
장 기대

광진원텍(090150): 따뜻한 시트와 핸들이 절실한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필요한 월동아이템

- 시트히터, 통풍시트, 발열핸들 제조기업으로 씨텍시스템 인수 이후 통합 ECU(Electronic Control Unit)로 제품범위를 확대하는 중: 통합 ECU는 1개의 ECU로 여러 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 통상 자동차 한 대당 ECU는 5~6개 장착되었으나, 복잡한 독일식 모델에서 심플함을 추구하는 미국식 모델로 트렌드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시트히터가 옵션사항에서 기본장착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대당 시트히터 장착개수는 2003년 0.8개에서 2010년 2.19개로 2.7배 증가(한국자동차공업협회)하였음.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에도 기본장착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
- 2011년 실적 가이드스: 매출액 670억원(YoY 33.2%), 영업이익 32억원(YoY +88.2%)으로 추정: 반기까지 매출 331억원, 조정영업이익 24억원을 기달성하였고 연말 자동차업체의 밀어내기식 채고 소진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성수기가 남아있음을 감안할 때 가이드스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
- 투자 포인트: 1) YF 상급 모델에 발열핸들 추가 납품기로 확정, 2) 말리부 모델에 시트히터 10월부터 납품할 예정으로 매출처 다변화로 현대/기아차향 높은 의존도 완화, 3) 통합ECU 모델 어플리케이션 확대(자동차 시트온도제어, 쉐루프시스템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까지), 4) 중국, 베트남 현지생산으로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YF소나타, K5에 납품되는 외산 발열핸들, 통풍시트의 납품 비당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전망

|         | 매출액<br>(백만 RMB) | 증감률<br>(%) | 영업이익<br>(백만 RMB) | 증감률<br>(%) | 순이익<br>(백만 RMB) | 증감률<br>(%) | EPS<br>(RMB)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50.3            | 44.9       | 2.1              | (41.0)     | 2.2             | 44.5       | 286          | 9.4        | 0.7        | 7.7        | 12.6             | 126.7       |
| 2011F   | 67.0            | 33.2       | 3.2              | 88.24      | -               | -          | -            | -          | -          | -          | -                | -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1Q | 15.2            | 38.1       | 1.2              | 7.5        | 0.7             | 8.7        |              |            |            |            |                  |             |
| 2011.2Q | 18.9            | 44.2       | 1.1              | 5.7        | 0.5             | (57.6)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Quartz Ware 시장 내  
지배력 강화 및  
세정사업 진출로  
한 단계 Level up 전망

**원익쿼츠(074600): 본업이 끌고, 신규 사업이 밀고**

-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제품(Quartz Ware) 및 반도체, LCD 등의 세라믹 부품 생산업체로 현재 국내 Quartz Ware 시장의 약 35%(MS 1위) 점유
-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Quartz Ware 88%, 세라믹 9% 등이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동부하이텍, Lam Research 등임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29%한 증가한 190억원, 40억원으로 예상
- 반도체 및 LCD 등 전방산업 경기 둔화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매출처 다변화와 신규 적용 분야 확대로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8%, 52% 증가한 800억원, 160억원 전망
- 2012년은 반도체 Diffusion 공정에서 사용된 Quartz를 재활용하는 세정사업(삼성전자로부터 기존 설비를 무상으로 인수) 등 신규 매출이 더해지며 매출액 1,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예상
- 현재 주가는 2011년 예상 실적 기준 PER 약 6배, 2012년 PER 약 4배 수준으로 Quartz Ware 시장 내 지배력 강화, 신규 사업 매출 가시화 및 자회사 신원종합개발, 미국 현지법인 등의 펀더멘털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62.6         | 54.0       | 10.5          | 118.0      | 12.7         | 흑전         | 1,001      | 4.2        | 0.9        | 21.9       | 7.6              | 92.2        |
| 2011F   | 80.0         | 27.8       | 16.0          | 52.4       | 15.5         | 22.0       | 1,224      | 5.7        |            |            |                  |             |
| 2012F   | 100.0        | 25.0       | 20.0          | 25.0       | -            | -          |            |            |            |            |                  |             |
| 2011.2Q | 18.4         | 37.1       | 3.7           | 57.3       | 2.6          | 111.5      |            |            |            |            |                  |             |
| 2011.3Q | 20.9         | 36.3       | 4.4           | 73.9       | 3.0          | (26.2)     |            |            |            |            |                  |             |

주) 2011,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안정적인 프리즘시트  
매출을 바탕으로  
AMOLED HTL 등  
신사업 강화

**엘엠에스(073110): 프리즘시트 시장 지배력 강화 + AMOLED 소재 등 신사업 주목**

- 전 세계 소형 프리즘시트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형 프리즘시트 전문업체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AUO, Sharp 등의 고객사 보유
-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프리즘 시트 85%, 광픽업 부품 15% 등이며 수출비중은 약 74% 임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프리즘시트 물량 증가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K-IFRS 연결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67% 증가 예상. 아마존 킨드파이어 7인치 프리즘시트 공급 등으로 4분기 매출액은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프리즘 시트 시장에서 광픽업체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글라스 공장의 지진피해에 따른 반사 효과로 광픽업렌즈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며 올해 매출액 1,0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달성 전망
- 2012년 AMOLED 소재 및 마스크, 증착공정 관련 부품 등의 신규 사업 매출 가시화 기대. AMOLED 전공재료(HTL)는 현재 물성승인을 획득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납품을 추진 중
- 성공적인 AMOLED 시장 진입이 검증될 때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전망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72.4         | 5.4        | 19.1          | 24.4       | 18.9         | 81.6       | 2,278      | 7.7        | 2.3        | 33.7       | 7.6              | 64.1        |
| 2011F   | 100.0        | 38.1       | 25.0          | 30.9       | -            | -          |            |            |            |            |                  |             |
| 2012F   | 150.0        | 50.0       | 30.0          | 20.0       | -            | -          |            |            |            |            |                  |             |
| 2011.1Q | 25.1         | 85.4       | 8.5           | 193.3      | 6.3          | 139.8      |            |            |            |            |                  |             |
| 2011.2Q | 20.1         | 6.3        | 4.1           | (7.7)      | 4.9          | (27.5)     |            |            |            |            |                  |             |

주) 2011,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K-IFRS 연결) 기준



전방산업 호조 및  
신제품 수요 급증으로  
실적 순항 지속

이노칩(080420): 스마트폰 시장 성장으로 실적에 날개 달다

- 적층형 칩부품 전문업체로 주력으로 생산하는 CMF/CMEF 및 ESD Filter는 삼성전자, LG 전자 내 점유율 1위 기록
-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Chip 부품 89%, 센서/모듈 2%, 기타 8% 등이며 수출 비중은 약 66%임
- 세라믹칩 하나로 정전기와 노이즈를 제거하는 신제품 CMEF 수요 급증 및 성수기 효과 등으로 실적 호조세 지속
- 사측에서 제시한 올해 실적 가이드스는 매출액 650억원(+22% YoY), 영업이익 140억원(+84% YoY)으로 스마트폰 물량 확대 및 신제품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초과 달성할 가능성. 엔화 강세로 경쟁사 TDK 대비 가격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어 고객사 단가 인하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
- 스마트폰 시장 성장 가속화 및 CMEF 생산능력 증가로 2012년 매출액 850억원(+31% YoY), 영업이익 170억원(+21% YoY) 기대. 애플향 공급 가능성(현재 CMEF칩 테스트 중)이 열려 있다는 점도 긍정적
-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및 안정적인 재무구조(현금 250억원 보유 및 부채비율 38%) 등을 감안한 전향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53.1         | 5.7        | 7.6           | (33.0)     | 7.9          | (25.8)     | 635        | 7.6        | 1.0        | 13.4       | 3.9              | 30.2        |
| 2011F   | 65.0         | 22.4       | 14.0          | 84.2       | -            | -          |            |            |            |            |                  |             |
| 2012F   | 85.0         | 30.8       | 17.0          | 21.4       | -            | -          |            |            |            |            |                  |             |
| 2011.1Q | 14.3         | 26.4       | 1.8           | 69.8       | 1.8          | 52.6       |            |            |            |            |                  |             |
| 2011.2Q | 14.0         | 7.2        | 4.0           | 123.3      | 4.2          | 81.7       |            |            |            |            |                  |             |

주) 2011,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J.ESTINA 주얼리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핸드백 사업 본격화로  
성장 기대

로만손(026040): 해외 진출에 한 발 다가서다

- 주얼리 및 손목시계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브랜드 강화 및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성장을 도모. 주얼리 사업은 국내 주요 백화점 및 면세점 8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손목시계는 러시아, 중동, 터키지역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
-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주얼리 65%, 손목시계 29%, 핸드백 6% 등이며 수출 비중은 21%임
- 올해 매출액은 수출 증가 및 신규 핸드백 사업 매출 가시화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965억원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은 광고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80억원 예상
- 2012년은 J.ESTINA 주얼리의 미국 진출(2011년 말 1호점 오픈), J.ESTINA 핸드백 매장 확대(약 15개 계획) 및 수입브랜드와 병행한 시계 매장 추가 개설 등을 통해 매출액 1,116억원(+16% YoY), 영업이익 108억원(+35% YoY)을 달성한다는 계획.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위축 및 급격한 금 가격 상승은 리스크 요인
- 동사의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약 6배, 2012년 기준 PER 약 4배 수준으로 가격 매력도 부각 가능성. 남북경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동사의 주가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나 전체 투자 금액의 90%이 보험가입 돼있어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사업중단 위험은 크지 않다는 판단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87.6         | 19.5       | 8.3           | 25.2       | 7.0          | (3.5)      | 546        | 3.6        | 0.7        | 18.8       | 3.5              | 89.9        |
| 2011F   | 96.5         | 10.2       | 8.0           | (3.6)      | 6.0          | (14.3)     | 418        | 5.9        |            |            |                  |             |
| 2012F   | 111.6        | 15.6       | 10.8          | 35.0       | 8.2          | 36.7       | 572        | 4.3        |            |            |                  |             |
| 2011.1Q | 22.0         | 8.7        | 1.5           | (9.8)      | 2.3          | 12.1       |            |            |            |            |                  |             |
| 2011.2Q | 23.5         | 7.3        | 1.1           | (42.1)     | 1.1          | 311.8      |            |            |            |            |                  |             |

주) 2011,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글로벌 경기 위축 가능성  
은 부담 요인이나,  
현 수준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

**모두투어(080160): PER은 상장 이래 최저 수준**

- 업계 2위의 여행업체로 2010년 기준 국내 M/S 8%, 매출 구성은 패키지 약 92%에 항공권 판매 및 기타가 8%
- 3분기 실적: 매출액 367억원(+0.12% YoY), 영업이익 68억원(-10.3% YoY)으로 집계. 일본 패키지 매출 비중이 기존 23%대에서 10%로 대폭 하락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
- 2011년 실적 가이드스: 매출액 1,300억원(+11.1% YoY), 영업이익 220억원(+13.4% YoY)을 제시. 올해 4분기 실적 인센티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지난해는 40억원 지급), 이에 따라, 가이드스 달성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동사 주가는 8월 이후 약 32% 하락했으며, 환율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을 거듭, 현재 주가는 2011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2.9배로 2005년 상장한 이래 역사적 저점 수준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여행산업 위축 가능성은 불만 요인이나, 2012년에도 전체 출국자수와 항공권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 수준의 주가대에서는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최근 외국인 보유 비중도 6월 고점(21.6%) 대비 10.6%로 낮아져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시 재매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117.1        | 90.8       | 19.4          | 8,128.3    | 16.0         | 1,219.2    | 1,991      | 17.8       | 4.0        | 27.6       | 10.3             | 88.4        |
| 2011F   | 130.0        | 11.1       | 22.0          | 13.4       | 18.1         | 12.8       | 2,246      | 12.9       | 2.8        | 24.9       | 6.3              | 81.8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2Q | 25.8         | -1.9       | 1.7           | -64.6      | 1.9          | -45.7      | -          | -          | -          | -          | -                | -           |
| 2011.3Q | 36.7         | 0.1        | 6.8           | -10.3      | 53.4         | -12.9      | -          | -          | -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하나투어(039130): 당분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

- 업계 1위의 여행업체로 2010년 기준 국내 M/S 16%, 매출 구성은 패키지 80%에 항공권 판매 11%, 기타(대리점 판매수익, 광고수익 등) 약 9%
- 3분기 실적: 매출액 661억원(-0.1% YoY), 영업이익 91억원(-29.7% YoY)을 기록. 모두 투어와 마찬가지로 일본 지역 매출 감소(기존 20%→4%대로 하락)로 부진을 면치 못함
- 2011년 실적 가이드스: 매출액 2,300억원(+5.5% YoY), 영업이익 280억원(+2.9% YoY)을 제시. 4분기 실적 인센티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가이드스 달성 가능성은 높으나, 수익성 개선이 미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
- 단기 낙폭과대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이나, 업황이 다소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주가 반등은 업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거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 FIT(개별 자유여행) 등의 지속적인 투자(올해 약 80억원 전망)도 현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움
- 현재 주가는 2011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5.6배로 과거 6년래 최저 수준이나, 본격적인 주가 상승까지는 당분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218.1        | 76.0       | 27.2          | 6,304.3    | 24.1         | 특전         | 2,193      | 19.9       | 4.1        | 23.9       | 12.3             | 98.8        |
| 2011F   | 230.0        | 5.5        | 28.0          | 2.9        | 25.8         | 6.7        | 2,362      | 15.6       | 3.1        | 21.7       | 9.5              | 90.8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2Q | 47.6         | -1.9       | 0.4           | -91.3      | 0.2          | -95.3      | -          | -          | -          | -          | -                | -           |
| 2011.3Q | 66.1         | -0.1       | 9.1           | -29.7      | 7.0          | -29.6      | -          | -          | -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기  
까지, 당분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

고마진 항균 제품+기존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로  
2012년도 실적 개선 기대

세운메디칼(100700): 항균 카테터 등 고부가 신제품의 매출 성장 기대

-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의료용 흡입기 국내 M/S 86%, 의료용 취관 M/S 50%. 2010년 기준 매출 구성은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 50%, 의료용 흡입기 20%, 스텐트 및 기타 30%
- 3분기 실적: 매출액 105억원(+22.2% YoY), 영업이익 12억원(-29.4% YoY)을 예상.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제품 개발비용과 시설투자 비용 집행이 이어지며 수익성이 하락할 전망
- 2011년 실적 가이드스: 매출액 400억원(+15.5% YoY), 영업이익 80억원(+45.5% YoY)을 제시. 올해 연간 매출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액이 3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이드스 달성이 무리일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실적 개선 전망: 은나노 항균 코팅 기술을 적용한 항균 카테터(비뇨기과용)와 의료용 흡입기 등의 보험수가가 책정됨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 기대. 항균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제품가는 2배 이상, 마진율은 5~10배 가량 높아 내년도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 이밖에 혈액/수액 온열가온기와 스텐트 등 제품군의 유럽, 미국향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34.7         | 15.0       | 5.5           | -11.3      | 4.5          | -26.2      | 102        | 20.0       | 2.3        | 11.6       | 11.2             | 23.9        |
| 2011F   | 40.0         | 15.5       | 8.0           | 45.5       | 6.3          | 40.0       | 145        | 31.2       | 4.5        | 14.6       | 19.1             | 23.8        |
| 2012F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1Q | 8.9          | 17.1       | 1.5           | 7.1        | 1.1          | -3.6       |            |            |            |            |                  |             |
| 2011.2Q | 10.3         | 21.2       | 1.0           | -33.3      | 0.7          | -50.7      |            |            |            |            |                  |             |

주) 2011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2012년 실적은 미제시

Camera ISP+CCD  
Sensor의 패키지 부품 수  
율 안정이 관건

넥스트칩(092600): 카메라 칩 패키지의 정상 가동 여부가 관건

- 영상처리 반도체 칩 펫리스(fabless) 전문업체로, 영상보안 장비인 CCTV 카메라와 DVR에 들어가는 Camera ISP, CCD Sensor, Video Decoder 등의 칩을 설계. 2010년 기준 매출 구성은 영상처리칩 92.7%(Camera ISP 55.4%, Video Decoder 28.4% 등), 카메라 부품 및 기타 7.3%임
- 3분기 실적: 매출액 115억원(-10.2% YoY), 영업이익 15억원(-46.4% YoY)을 예상. 주력제품인 Camera ISP의 매출 감소로 부진할 전망
- 2011년 실적 가이드스: 매출액 520억원(+3.2% YoY), 영업이익 60억원(-33.3% YoY)을 제시. 지난 4월 IR 개회시 제시했던 매출액 61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하향 조정. 2011년 실적 부진의 원인은 1) Camera ISP+CCD Sensor의 패키지 부품 수율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2) Video Decoder 분야에서 테크웰과의 단가 인하 경쟁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추정
- 2012년 카메라 칩 패키지의 정상 가동 여부가 관건: 카메라 칩 패키지의 수율 안정화 여부가 내년도 실적을 좌우할 전망. 중국, 대만향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차량용 블랙박스, 터치센서 key 등 신규 사업군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
- 동사는 '박근혜 수혜주'로 분류되어 최근 등락을 거듭했으나,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주력 제품인 카메라 칩 패키지의 수율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매수 시점으로 판단됨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50.4         | 24.7       | 9.0           | 26.8       | 10.0         | 16.3       | 2,157      | 4.3        | 2.4        | 22.9       | 9.0              | 19.9        |
| 2011F   | 52.0         | 3.2        | 6.0           | -33.3      | 6.9          | -31.0      | 529        | 19.7       | 3.2        | 21.3       | 14.6             | 13.6        |
| 2012F   | 80.0         | 53.8       | 16.0          | 166.7      | -            | -          |            |            |            |            |                  |             |
| 2011.1Q | 9.6          | 3.2        | 1.3           | 43.8       | 1.9          | 19.1       |            |            |            |            |                  |             |
| 2011.2Q | 11.7         | -19.9      | 1.5           | -46.0      | 2.2          | -2.3       |            |            |            |            |                  |             |

주) 2011년,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스 기준

일본을 비롯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주인수권 행사를  
고려할 필요 있음

**에스텍파마(041910):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2012년 매출 역시 30% 이상 성장할 전망**

- 원료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인 퍼스트제너릭에 집중
- 2010년 매출 기준 약 65% 수준이었던 수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72%로 확대된 가운데, 1) 주요 제품인 위궤양치료제 및 천식치료제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2) 일본내 대형 제약사들이 신규 의약품에 대한 추가 개발을 의뢰하였으며, 3) 주요 수출국인 일본(전체 수출의 80% 비중)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수요 증가로 향후 80%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고 수익성이 기대되는 MRI 조영제 4종에 대해 유럽 및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선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부터 동사 수익성 개선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5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장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며, 완공시 현재 연간 800억원(매출 기준) 수준의 CAPA는 1,600억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 2004년 2월 발행했던 BW 및 2009년 4월 발행했던 BW 물량이 각각 237,237주, 1,328,903주가 남아있으며,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EPS 희석효과는 약 14.4% 수준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45.5         | 41.7       | 6.9           | 68.0       | 4.4          | 203.1      | 487        | 8.2        | 1.0        | 12.1       | 4.5              | 59.7        |
| 2011F   | 59.7         | 31.0       | 9.7           | 40.2       | 6.6          | 52.6       | 725        | 8.6        | 1.4        | 16.1       | 5.1              | 58.9        |
| 2012F   | 80.0         | 34.0       | 13.5          | 38.6       | 10.2         | 53.5       | 1,100      | 5.7        | 1.1        | 20.7       | 3.9              | 57.0        |
| 2011.1Q | 13.0         | (11.7)     | 2.4           | (29.2)     | 1.6          | (8.3)      |            |            |            |            |                  |             |
| 2011.2Q | 14.4         | 10.9       | 2.7           | 14.9       | 1.7          | 8.4        |            |            |            |            |                  |             |

주) 2011년,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선 기준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KOMINOX 항암제에 대한  
임상효과는 우수한 편

**코미팜(041960):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

- 동물용 백신(양돈 및 양계용 위주)과 치료제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인체에 적용되는 KOMINOX라는 항암제를 개발하여 임상을 진행중
- 구제역 여파로 국내 양돈가의 돼지 개체수가 약 30% 감소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개체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국내 양돈가 향 매출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지난해부터 돼지 백신의 일종인 썬코백신의 국내 판매가 본격화. 한편, 국내 썬코백신 시장 규모는 협소하나 시장규모가 방대한 중국에서 동사는 연말까지 썬코백신제를 등록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전망
- 항암제: 국내의 경우 간암 및 당도암에 대해 2상을 진행중이며, 서양의 경우 서양인들에게 발병 확률이 높은 전립선암(2상) 및 폐암(1상)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중. 현재 동사가 개발한 항암제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신약의 경우 3상(평균 3년 소요)에 진입했을 때 실제 약품 판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단순히 동사가 개발하는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 단, 항암제의 경우 Fast Track(통상 임상 3상까지 마친 뒤 신약 허가 신청을 받도록 돼있지만, 비상시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임상 2상후 허가) 제도가 있음
- 임상 단계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 동사가 BW 발행할 가능성이 높음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18.2         | 13.6       | 1.6           | 흑전         | 0.6          | 흑전         | 11         | NA         | 14.1       | 2.2        | 149.4            | 42.6        |
| 2011F   | 19.1         | 5.0        | 1.7           | 5.6        | 0.6          | 1.5        | 2          | NA         | 11.0       | 1.5        | 197.4            | 25.8        |
| 2012F   | 24.8         | 30.0       | 2.7           | 56.1       | 2.3          | 302.6      | 9          | NA         | 10.7       | 4.6        | 145.3            | 26.5        |
| 2011.1Q | 4.5          | (11.2)     | 0.4           | (65.3)     | 0.2          | (78.8)     |            |            |            |            |                  |             |
| 2011.2Q | 5.1          | 11.6       | 0.4           | 9.3        | 0.3          | 69.2       |            |            |            |            |                  |             |

주) 2011년,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선 기준

원자력 발전소 건립  
지연에 대한 우려는  
전력 생산 비용을 감안할  
경우 기우라는 판단

**우진(105840): 전방위적인 계측기 수요 증가 추세는 내년에도 유효할 전망**

- 산업용 계측기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기준 주요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원전 계측기 35%, 플랜트 계측기 23%, CMS(설비진단 시스템) 12%, 유량 시스템 11% 등임
- 타 발전 방식 대비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전력 생산을 위한 유지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 대지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 증설은 전세계적으로 지속될 전망
- 국내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년 1기의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 국내 원전 계측기 독점 공급 업체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됨
-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유량시스템 부문의 매출이 증가 추세
- 플랜트 계측기 부문 역시 내년부터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현대제철의 3고로 증설, 포스코의 광양공장 증설 및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동국제강의 브라질 제철소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동사는 전방위적인 수요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평택 부지에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을 계획
- 원전 계측기 사업 부문의 확대, 2012년 하반기부터 현대제철 3고로 증설에 따른 실적 반영, 유량 계측기 사업부문의 확대 등으로 외형 확장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52.4         | 4.2        | 9.0           | 5.8        | 11.0         | 4.0        | 1,594      | 15.1       | 2.3        | 16.5       | 14.1             | 14.7        |
| 2011F   | 61.0         | 16.5       | 10.5          | 16.7       | 13.0         | 17.3       | 1,565      | 8.9        | 1.2        | 14.2       | 5.6              | 19.8        |
| 2012F   | 70.1         | 15.0       | 12.1          | 15.2       | 14.5         | 12.2       | 1,697      | 8.2        | 1.1        | 14.5       | 4.3              | 22.9        |
| 2011.1Q | 9.6          | (53.3)     | 0.9           | (84.9)     | 1.3          | (76.1)     |            |            |            |            |                  |             |
| 2011.2Q | 15.9         | 66.7       | 2.6           | 209.4      | 2.5          | 84.7       |            |            |            |            |                  |             |

주) 2011년, 2012년 실적은 회사측 가이드선 기준

보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배당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보유

**KTcs(058850): 보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

- 114번호안내(우선번호안내 포함), Olleh 고객센터, 컨택센터, 유·무선통신서비스, CS 전문가 육성 등의 사업을 아우르는 토탈 컨택센터 업체
- 2010년 기준 사업별 매출비중은 Olleh 고객센터 45%, 114번호안내(우선번호안내 포함) 26%, 컨택센터 12%, 유통사업 15% 등임
- 올해 상반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0%, 34.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세가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이유는 고정비(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이 감소했기 때문
- 컨택센터의 고객 증가세가 지난해부터 추춤해짐에 따라 CS Academy를 운영하는 등 고객사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시가총액의 80% 수준에 육박하는 현금성 자산을 8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보유 자산인 염창동 서울사옥은 실사를 통해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현재 장부가 대비 2배 이상의 가치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 현 주가수준에서 PBR은 0.8배에 불과
-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성향(약 30%)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 주가 기준으로 약 5% 수준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됨

|         | 매출액<br>(십억원) | 증감률<br>(%) | 영업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순이익<br>(십억원) | 증감률<br>(%) | EPS<br>(원) | PER<br>(배) | PBR<br>(배) | ROE<br>(%) | EV/EBITDA<br>(배) | 부채비율<br>(%) |
|---------|--------------|------------|---------------|------------|--------------|------------|------------|------------|------------|------------|------------------|-------------|
| 2010A   | 353.9        | 44.4       | 18.5          | 49.3       | 15.2         | 23.3       | 355        | 6.2        | 0.9        | 15.5       | 1.0              | 50.1        |
| 2011F   | 390.0        | 10.2       | 20.6          | 11.7       | 17.3         | 14.0       | 379        | 6.0        | 0.8        | 14.3       | 0.5              | 52.0        |
| 2012F   | 429.0        | 10.0       | 22.8          | 10.7       | 19.2         | 10.7       | 412        | 5.6        | 0.7        | 13.9       | 0.1              | 45.8        |
| 2011.1Q | 91.0         | 1.6        | 8.1           | 111.5      | 6.3          | 262.0      |            |            |            |            |                  |             |
| 2011.2Q | 96.8         | 6.4        | 5.5           | (31.7)     | 4.9          | (23.0)     |            |            |            |            |                  |             |

주) 2011년, 2012년 실적은 당사 추정치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10/11(화)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10/18(화)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1,795.02 | 1,809.50 | 1,823.10 | 1,835.40 | 1,865.18 | 1,838.90 |
|      | 등락폭         | 28.58    | 14.48    | 13.60    | 12.30    | 29.78    | -26.28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633(15)  | 505(17)  | 600(15)  | 401(10)  | 210(7)   |
|      |             | 하락(하한)   | 215(0)   | 323(1)   | 247(1)   | 437(1)   | 192(3)   |
|      | ADR         | 93.86    | 98.19    | 110.50   | 109.66   | 108.20   | 106.56   |
|      | 이격도         | 10 일     | 103.15   | 103.54   | 103.73   | 104.04   | 105.15   |
|      |             | 20 일     | 101.87   | 102.70   | 103.25   | 103.77   | 105.38   |
|      | 투자심리        | 70       | 70       | 80       | 80       | 80       | 80       |
|      | 거래량 (백만 주)  | 394      | 347      | 425      | 345      | 363      | 314      |
|      | 거래대금 (십억 원) | 7,031    | 5,591    | 6,530    | 4,991    | 5,842    | 5,659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459.06   | 467.65   | 473.56   | 473.89   | 485.38   | 483.43   |
|      | 등락폭         | 5.15     | 8.59     | 5.91     | 0.33     | 11.49    | -1.95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665(34)  | 628(29)  | 691(40)  | 463(28)  | 678(31)  |
|      |             | 하락(하한)   | 297(3)   | 312(3)   | 272(5)   | 477(5)   | 274(0)   |
|      | ADR         | 101.31   | 106.30   | 119.75   | 119.75   | 117.09   | 116.27   |
|      | 이격도         | 10 일     | 104.22   | 105.35   | 105.75   | 105.10   | 106.80   |
|      |             | 20 일     | 102.14   | 104.09   | 105.16   | 105.01   | 107.35   |
|      | 투자심리        | 80       | 80       | 80       | 80       | 80       | 80       |
|      | 거래량 (백만 주)  | 672      | 607      | 612      | 549      | 588      | 629      |
|      | 거래대금 (십억 원) | 2,712    | 3,035    | 2,847    | 3,318    | 3,097    | 3,771    |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증권)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종기금)   | 기 타      |
|------|---------|----------|----------|---------|---------|----------|----------|---------|----------|---------|----------|
| 유가증권 | 매수      | 3,500.9  | 721.4    | 1,234.0 | 200.4   | 163.7    | 414.7    | 43.4    | 47.9     | 363.7   | 249.4    |
|      | 매도      | 3,288.6  | 902.7    | 1,251.2 | 186.4   | 196.6    | 552.7    | 67.4    | 35.5     | 212.6   | 263.0    |
|      | 순매수     | 212.3    | -181.3   | -17.2   | 14.0    | -32.8    | -138.0   | -24.0   | 12.5     | 151.1   | -13.7    |
|      | 10 월 누계 | -2,041.0 | 526.8    | 1,266.7 | -172.3  | 74.1     | 64.9     | 32.9    | -8.8     | 1,275.7 | 247.5    |
|      | 11 년 누계 | 1,687.6  | -6,205.5 | 5,813.2 | 1,381.4 | -1,353.1 | -3,381.4 | 1,702.2 | -1,806.9 | 9,271.0 | -1,295.3 |
| 코스닥  | 매수      | 3,605.1  | 48.0     | 125.7   | 14.6    | 17.5     | 50.2     | 5.9     | 4.0      | 33.5    | 28.5     |
|      | 매도      | 3,548.6  | 120.5    | 110.0   | 7.6     | 17.2     | 58.7     | 6.6     | 2.8      | 17.1    | 28.3     |
|      | 순매수     | 56.5     | -72.5    | 15.8    | 7.0     | 0.3      | -8.5     | -0.8    | 1.2      | 16.4    | 0.2      |
|      | 10 월 누계 | 313.3    | -257.2   | -41.4   | -5.6    | 8.9      | -114.8   | 18.8    | -21.1    | 72.4    | -14.7    |
|      | 11 년 누계 | 127.6    | -730.9   | 913.6   | 113.9   | 272.0    | 96.7     | 143.2   | -139.2   | 427.1   | -310.3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신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 서비스업    | 38,888  |
| 운수장비    | -46,069 |
| 전기,전자   | 31,912  |
| 금융업     | -42,432 |
| 의약품     | 3,422   |
| 철강및금속   | -38,007 |
| LG디스플레이 | 21,513  |
| 현대중공업   | -27,051 |
| SK이노베이션 | 15,996  |
| 현대글로비스  | -21,660 |
| 현대건설    | 8,694   |
| KB금융    | -18,696 |
| SK      | 8,552   |
| POSCO   | -18,274 |
| 한국타이어   | 6,751   |
| 삼성생명    | -16,919 |

| 연 기 금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 화학      | 37,448  |
| 철강및금속   | -24,001 |
| 전기,전자   | 31,736  |
| 전기가스업   | -1,434  |
| 서비스업    | 26,102  |
| 섬유,의복   | -1,187  |
| 삼성전자    | 27,350  |
| POSCO   | -9,035  |
| 현대모비스   | 11,779  |
| 현대중공업   | -8,631  |
| 현대차     | 11,356  |
| 현대하이스코  | -8,445  |
| SK이노베이션 | 10,617  |
| 현대제철    | -6,222  |
| OCI     | 9,965   |
| GS      | -4,132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행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 전기,전자   | 6,280  |
| 화학      | -3,072 |
| 철강및금속   | 4,355  |
| 통신업     | -2,635 |
| 보험      | 3,262  |
| 유통업     | -1,042 |
| POSCO   | 5,272  |
| 제일모직    | -5,506 |
| 삼성생명    | 3,211  |
| KT      | -2,643 |
| 신한지주    | 2,575  |
| 세아베스틸   | -1,212 |
| LG전자    | 2,108  |
| 엔씨소프트   | -939   |
| 대우인터내셔널 | 1,602  |
| 현대상사    | -928   |

| 보 험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 서비스업    | 16,062  |
| 금융업     | -20,401 |
| 화학      | 6,766   |
| 철강및금속   | -18,623 |
| 통신업     | 5,590   |
| 전기,전자   | -11,819 |
| SK이노베이션 | 6,246   |
| 현대중공업   | -13,999 |
| 엔씨소프트   | 4,213   |
| POSCO   | -9,750  |
| SK케미칼   | 4,070   |
| 삼성전자    | -9,212  |
| SK      | 3,966   |
| KB금융    | -6,898  |
| OCI     | 3,669   |
| LG화학    | -6,416  |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관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 서비스업    | 75,187  |
| 철강및금속   | -78,510 |
| 전기,전자   | 64,519  |
| 금융업     | -49,450 |
| 통신업     | 17,506  |
| 운수장비    | -36,442 |
| 삼성전자    | 40,939  |
| 현대중공업   | -48,061 |
| SK이노베이션 | 27,253  |
| POSCO   | -32,859 |
| 현대건설    | 23,109  |
| 현대제철    | -26,857 |
| OCI     | 16,528  |
| KB금융    | -21,196 |
| LG디스플레이 | 15,245  |
| 삼성물산    | -17,791 |
| 현대모비스   | 13,155  |
| 현대글로비스  | -16,486 |
| SK      | 12,930  |
| 한화케미칼   | -16,110 |
| 현대차     | 12,800  |
| 우리금융    | -12,553 |
| 한국타이어   | 12,745  |
| 신한지주    | -12,002 |
| 엔씨소프트   | 10,949  |
| GS건설    | -11,036 |

| 외 국 인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 화학      | 11,327   |
| 보험      | -102,452 |
| 증권      | 4,896    |
| 서비스업    | -61,505  |
| 건설업     | 4,006    |
| 전기,전자   | -55,675  |
| 호남석유    | 15,387   |
| 삼성생명    | -95,876  |
| POSCO   | 9,692    |
| 삼성전자    | -24,811  |
| 삼성중공업   | 9,602    |
| NHN     | -23,401  |
| 금호석유    | 5,648    |
| LG디스플레이 | -17,077  |
| LG생활건강  | 5,315    |
| 현대모비스   | -13,874  |
| 기아차     | 5,263    |
| SK텔레콤   | -11,265  |
| 현대미포조선  | 3,986    |
| 엔씨소프트   | -11,116  |
| 대우조선해양  | 3,685    |
| GS      | -10,181  |
| 롯데쇼핑    | 3,644    |
| OCI     | -8,922   |
| LG유플러스  | 3,392    |
| 현대중공업   | -8,553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신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반도체   | 3,475 | 전문기술    | -7,923 |
| 방송서비스 | 2,434 | 제약      | -4,539 |
| 사업지원  | 2,020 | 오락,문화   | -3,076 |
| 실리콘웍스 | 4,310 | CJ E&M  | -8,311 |
| CJ오쇼핑 | 2,408 | 메디포스트   | -3,859 |
| 하나투어  | 2,076 | 네오위즈게임즈 | -3,301 |
| 고영    | 2,062 | 제이콘텐츠리  | -2,146 |
| 바이오랜드 | 1,156 | 씨젠      | -1,495 |

| 연 기 금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IT부품  | 4,208 | 전문기술    | -2,764 |
| 인터넷   | 3,488 | 기계,장비   | -1,387 |
| 방송서비스 | 3,367 | 오락,문화   | -342   |
| 다음    | 3,258 | CJ E&M  | -3,889 |
| CJ오쇼핑 | 3,167 | 에스에프에이  | -1,416 |
| JCE   | 2,439 | 네오위즈인터넷 | -1,155 |
| 멜파스   | 1,273 | AP시스템   | -1,126 |
| 셀트리온  | 1,201 | 티씨케이    | -945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행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인터넷   | 784 | 제약     | -421 |
| 반도체   | 384 | 전문기술   | -412 |
| IT부품  | 367 | 방송서비스  | -395 |
| 다음    | 784 | CJ오쇼핑  | -443 |
| 차바이오텐 | 395 | CJ E&M | -430 |
| 포스코컴텍 | 345 | 웹젠     | -207 |
| 원익IPS | 289 | 메디톡스   | -185 |
| 게임빌   | 275 | 인포피아   | -162 |

| 보 험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방송서비스 | 2,997 | 전문기술    | -4,422 |
| 인터넷   | 1,582 | 출판,매체복제 | -980   |
| IT부품  | 1,254 | 기계,장비   | -867   |
| CJ오쇼핑 | 3,029 | CJ E&M  | -4,354 |
| SK컴즈  | 1,483 | 에스에프에이  | -1,119 |
| 멜파스   | 877   | 에스엠     | -1,028 |
| 와이지-원 | 839   | STS반도체  | -846   |
| 평화정공  | 776   | 씨젠      | -553   |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관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방송서비스  | 8,019 | 전문기술    | -16,402 |
| IT부품   | 7,962 | 오락,문화   | -4,048  |
| 인터넷    | 7,600 | 기계,장비   | -2,028  |
| CJ오쇼핑  | 7,731 | CJ E&M  | -17,890 |
| 실리콘웍스  | 5,751 | 메디포스트   | -4,639  |
| 다음     | 5,588 | 에스에프에이  | -3,152  |
| 셀트리온   | 4,844 | 씨젠      | -2,600  |
| JCE    | 3,373 | 네오위즈게임즈 | -2,576  |
| 멜파스    | 3,310 | 제이콘텐츠리  | -2,575  |
| 덕산하이메탈 | 2,979 | 서울반도체   | -2,025  |
| 고영     | 2,725 | AP시스템   | -1,575  |
| 인터플렉스  | 2,401 | 파라다이스   | -1,471  |
| 하나투어   | 2,082 | 에스엔유    | -963    |

| 외 국 인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의료,정밀기기 | 890   | 제약     | -23,888 |
| 비금속     | 631   | IT부품   | -14,726 |
| 금속      | 531   | 방송서비스  | -7,105  |
| 네오위즈인터넷 | 2,199 | 셀트리온   | -19,125 |
| 원익IPS   | 1,118 | 멜파스    | -11,084 |
| 성광벤드    | 1,064 | CJ오쇼핑  | -6,939  |
| 아가방컴퍼니  | 874   | 다음     | -5,595  |
| 포스코컴텍   | 562   | 덕산하이메탈 | -5,452  |
| 하이록코리아  | 421   | 씨젠     | -2,486  |
| 뷰웍스     | 402   | CJ E&M | -1,856  |
| 인프라웨어   | 390   | 게임빌    | -1,760  |
| 휴비츠     | 376   | 차바이오텐  | -1,753  |
| 태광      | 341   | 성우하이텍  | -1,371  |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부광약품    | 26 일 | LS산전  | 15 일 |
| 대덕전자    | 18 일 | 금호석유  | 10 일 |
| 현대엘리베이  | 13 일 | 삼성카드  | 9 일  |
| 일진디스플레이 | 12 일 | 유한양행  | 8 일  |
| 대한통운    | 11 일 | KCC   | 7 일  |
| 삼성정밀화학  | 11 일 | 삼성SDI | 7 일  |
| 대웅제약    | 11 일 | 대교    | 7 일  |
| LG상사    | 10 일 | 삼성물산  | 6 일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포스코엠텍   | 7 일 | 태광    | 9 일 |
| 포스코캠텍   | 6 일 | 신화인터텍 | 6 일 |
| 포스코 ICT | 5 일 | KH바텍  | 5 일 |
| 다음      | 5 일 | 파트론   | 5 일 |
| CJ오쇼핑   | 5 일 | 매일유업  | 4 일 |
| GS홈쇼핑   | 4 일 | 성광벤드  | 4 일 |
| 한빛방송    | 4 일 | 코미팜   | 4 일 |
| 평화정공    | 3 일 | 네패스   | 3 일 |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삼성전자    | 127,558 | 현대모비스 | 117,833 |
| 현대차     | 80,809  | 현대차   | 93,419  |
| 삼성전기    | 77,741  | 호남석유  | 62,547  |
| 현대건설    | 73,483  | 기아차   | 59,721  |
| LG디스플레이 | 68,136  | 금호석유  | 54,826  |
| 하나금융지주  | 61,315  | S-Oil | 49,110  |
| NHN     | 50,537  | 신한지주  | 47,193  |
| 엔씨소프트   | 47,050  | 삼성물산  | 31,268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CJ오쇼핑  | 27,682 | 성광벤드    | 4,752 |
| 다음     | 23,895 | 네패스     | 3,282 |
| 멜파스    | 12,668 | 네오위즈인터넷 | 3,276 |
| 인터플렉스  | 9,390  | 네오위즈게임즈 | 2,831 |
| 유니크    | 9,389  | 젬백스     | 2,318 |
| JCE    | 8,014  | 태광      | 1,770 |
| 평화정공   | 7,586  | 이노셀     | 1,679 |
| 실리콘웍스  | 7,271  | 차바이오앤   | 1,649 |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       | 목      | 기      | 관      |
| 외       | 국 인    | 합      | 계      |
| 화학      | 16,683 | 11,327 | 28,009 |
| 건설업     | 8,650  | 4,006  | 12,656 |
| 기계      | 4,083  | 2,740  | 6,823  |
| 현대건설    | 23,109 | 825    | 23,934 |
| 현대차     | 12,800 | 846    | 13,646 |
| 제일모직    | 9,794  | 753    | 10,547 |
| LG유플러스  | 6,691  | 3,392  | 10,083 |
| 기아차     | 3,770  | 5,263  | 9,033  |
| SK케미칼   | 6,675  | 1,376  | 8,051  |
| 두산인프라코어 | 5,924  | 557    | 6,481  |
| KCC     | 4,482  | 471    | 4,953  |
| CJ제일제당  | 3,571  | 1,185  | 4,756  |
| 넥센타이어   | 2,730  | 1,630  | 4,359  |

| KOSDAQ  |       |       |       |
|---------|-------|-------|-------|
| 종       | 목     | 기     | 관     |
| 외       | 국 인   | 합     | 계     |
| 의료,정밀기기 | 793   | 890   | 1,682 |
| 비금속     | 967   | 631   | 1,599 |
| 소매      | 1,357 | 77    | 1,434 |
| 실리콘웍스   | 5,751 | 92    | 5,842 |
| 인터플렉스   | 2,401 | 21    | 2,422 |
| 평화정공    | 1,661 | 50    | 1,710 |
| 서부T&D   | 1,357 | 144   | 1,501 |
| 원익IPS   | 369   | 1,118 | 1,488 |
| 나노신소재   | 1,197 | 42    | 1,239 |
| 포스코캠텍   | 630   | 562   | 1,192 |
| 뷰웍스     | 786   | 402   | 1,189 |
| 네오위즈    | 936   | 195   | 1,130 |
| 드래곤플레이  | 424   | 39    | 462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쌍용양회     | 10 일 | 한일시멘트  | 21 일 |
| 두산       | 9 일  | 하나금융지주 | 10 일 |
| 대한생명     | 9 일  | 대웅제약   | 9 일  |
| 송원산업     | 8 일  | 아세아시멘트 | 8 일  |
| 대우증권     | 7 일  | 하이트홀딩스 | 7 일  |
| BS금융지주   | 7 일  | 고려아연   | 7 일  |
| 한진중공업홀딩스 | 6 일  | 강원랜드   | 6 일  |
| 삼성SDI    | 6 일  | 한국철강   | 6 일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SK브로드밴드 | 15 일 | 에이블씨엔씨 | 16 일 |
| 서울반도체   | 12 일 | 동서     | 11 일 |
| 젬백스     | 12 일 | CJ오쇼핑  | 11 일 |
| 에스엠     | 9 일  | 에스에프에이 | 11 일 |
| 메디포스트   | 7 일  | 오성엘에스티 | 8 일  |
| 에스에프에이  | 6 일  | 덕산하이메탈 | 8 일  |
| 비에이치아이  | 6 일  | 다음     | 7 일  |
| 매일유업    | 5 일  | 태산엘시디  | 5 일  |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현대중공업 | -201,239 | 삼성생명    | -102,082 |
| 현대제철  | -72,242  | 하나금융지주  | -62,421  |
| POSCO | -61,954  | NHN     | -52,558  |
| 한화케미칼 | -56,756  | OCI     | -34,088  |
| 대림산업  | -55,283  | LG      | -19,619  |
| S-Oil | -48,255  | LG디스플레이 | -19,078  |
| 호남석유  | -37,924  | SK텔레콤   | -15,222  |
| 삼성SDI | -37,061  | LG전자    | -15,049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에스에프에이 | -25,387 | 셀트리온   | -145,251 |
| CJ E&M | -24,892 | 다음     | -18,930  |
| 셀트리온   | -22,997 | 덕산하이메탈 | -17,790  |
| 메디포스트  | -14,251 | CJ오쇼핑  | -16,288  |
| AP시스템  | -13,329 | 멜파스    | -12,151  |
| 에스엠    | -10,674 | AP시스템  | -9,599   |
| 서울반도체  | -7,529  | 에스엠    | -8,086   |
| 젬백스    | -6,674  | 서울반도체  | -7,551   |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     | 목       | 기        | 관        |
| 외     | 국 인     | 합        | 계        |
| 보험    | -9,958  | -102,452 | -112,410 |
| 철강및금속 | -78,510 | -73      | -78,583  |
| 금융업   | -49,450 | -1,678   | -51,128  |
| 삼성생명  | -5,254  | -95,876  | -101,130 |
| 현대중공업 | -48,061 | -8,553   | -56,614  |
| 현대제철  | -26,857 | -1,513   | -28,369  |
| KB금융  | -21,196 | -5,941   | -27,137  |
| LG화학  | -10,564 | -7,580   | -18,144  |
| 한화케미칼 | -16,110 | -1,689   | -17,799  |
| GS건설  | -11,036 | -2,344   | -13,380  |
| GS    | -1,352  | -10,181  | -11,533  |
| 대한항공  | -9,591  | -439     | -10,030  |
| 삼성화재  | -4,429  | -5,263   | -9,692   |

| KOSDAQ |         |         |         |
|--------|---------|---------|---------|
| 종      | 목       | 기       | 관       |
| 외      | 국 인     | 합       | 계       |
| 제약     | -1,997  | -23,888 | -25,884 |
| 전문기술   | -16,402 | -1,851  | -18,253 |
| 기계,장비  | -2,028  | -3,710  | -5,739  |
| CJ E&M | -17,890 | -1,856  | -19,746 |
| 씨젠     | -2,600  | -2,486  | -5,087  |
| 메디포스트  | -4,639  | -241    | -4,880  |
| 에스에프에이 | -3,152  | -1,140  | -4,292  |
| 제이콘텐트리 | -2,575  | -499    | -3,074  |
| AP시스템  | -1,575  | -691    | -2,266  |
| 파라다이스  | -1,471  | -99     | -1,570  |
| 젬백스    | -796    | -674    | -1,471  |
| 성우하이텍  | -24     | -1,371  | -1,396  |
| 에스엔유   | -963    | -419    | -1,382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삼성전자  | 3   | 2,782 |
| 대우증권  | 167 | 1,782 |
| 현대차   | 4   | 953   |
| POSCO | 1   | 394   |
| NHN   | 1   | 201   |
| KT    | 5   | 174   |
| SK텔레콤 | 1   | 89    |
| 기아차   | 1   | 43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성우하이텍  | 0   | 1   |
| 평화정공   | 0   | 1   |
| 삼천당제약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POSCO | 10,059 | 3,787,271 |
| 삼성전자  | 2,283  | 2,031,530 |
| 현대차   | 3,594  | 788,818   |
| OCI   | 2,740  | 631,594   |
| 하이닉스  | 27,426 | 602,010   |
| 현대중공업 | 2,004  | 601,063   |
| 현대모비스 | 1,695  | 590,018   |
| 삼성전기  | 6,490  | 544,480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셀트리온     | 8,324 | 345,460 |
| 서울반도체    | 5,760 | 122,981 |
| 원익IPS    | 4,077 | 31,962  |
| 메가스터디    | 187   | 25,083  |
| 덕산하이메탈   | 768   | 17,883  |
| OCI머티리얼즈 | 215   | 17,303  |
| 태웅       | 489   | 15,734  |
| 주성엔지니어링  | 1,618 | 15,260  |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 KOSPI   |       |         |        |
|---------|-------|---------|--------|
| 순 증     |       | 순 감     |        |
| 증권      | 6,726 | 금융업     | -2,263 |
| 운수창고    | 1,837 | 전기,전자   | -2,075 |
| 철강및금속   | 353   | 화학      | -1,863 |
| 대우증권    | 7,387 | 우리금융    | -1,371 |
| 한진해운    | 2,903 | 하나금융지주  | -1,164 |
| 대창      | 341   | STX팬오션  | -873   |
| BS금융지주  | 304   | LG디스플레이 | -792   |
| KT      | 286   | 케이피케미칼  | -539   |
| POSCO   | 206   | LG전자    | -517   |
| 광전자     | 162   | 기업은행    | -490   |
| 더존비즈온   | 107   | 강원랜드    | -384   |
| STX조선해양 | 84    | 한국타이어   | -367   |
| 한섬      | 68    | 삼성증권    | -337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 순 증     |     | 순 감    |      |
| IT부품    | 86  | 반도체    | -422 |
| 출판,매체복제 | 50  | 인터넷    | -120 |
| 미분류     | 12  | 소프트웨어  | -66  |
| 주성엔지니어링 | 156 | 루멘스    | -292 |
| 솔브레인    | 104 | 시그네틱스  | -157 |
| 크루셜텍    | 95  | SK컴즈   | -119 |
| 차바이오앤   | 91  | 셀트리온   | -110 |
| 한국정밀기계  | 63  | 엘앤씨피   | -105 |
| 에스엠     | 50  | 오성엘에스티 | -78  |
| 이오테크닉스  | 39  | 덕산하이메탈 | -48  |
| 용현BM    | 32  | 디지털시스템 | -47  |
| JCE     | 30  | 대아타이아이 | -42  |
| JW중외신약  | 29  | 메가스터디  | -41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10/18(화) |
|-------|----------|----------|--------|----------|----------|----------|----------|----------|
| 외국인   | -6,205.5 | 526.8    | 549.5  | -5.7     | 440.4    | 37.9     | 252.7    | -181.3   |
| 기관계   | 5,813.2  | 1,266.7  | 156.0  | 230.1    | -171.5   | 67.8     | 45.5     | -17.2    |
| (투신)  | -3,381.4 | 64.9     | -424.1 | 14.8     | -188.2   | -62.6    | -50.1    | -138.0   |
| (연기금) | 9,538.7  | 1,291.8  | 730.2  | 204.0    | 101.9    | 186.2    | 83.1     | 155.1    |
| (은행)  | -1,806.9 | -8.8     | -6.1   | 8.3      | -9.3     | -18.4    | 0.8      | 12.5     |
| (보험)  | -1,353.1 | 74.1     | 25.8   | 19.6     | 19.2     | -0.8     | 20.7     | -32.8    |
| 개인    | 1,687.6  | -2,041.0 | -493.2 | -58.3    | -189.8   | -102.1   | -355.3   | 212.3    |
| 기타    | -1,295.3 | 247.5    | -212.4 | -166.2   | -79.1    | -3.6     | 57.0     | -13.7    |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10/11(화)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
| KOSPI    | 1,124.47 | 1,682.77 | 2,051.00 | 1,795.02 | 1,809.50 | 1,823.10 | 1,835.40 | 1,865.18 |
| 고객예탁금    | 9336.3   | 12072.0  | 14068.5  | 19575.4  | 19621.7  | 20027.6  | 20136.2  | 20214.8  |
| (증감액)    | -746.3   | -714.3   | -228.9   | 522.8    | 46.3     | 405.9    | 108.6    | 78.6     |
| (회전율)    | 46.9     | 52.6     | 51.5     | 50.6     | 45.4     | 47.6     | 41.9     | 44.8     |
| 실질예탁금 증감 | -624.7   | -551.4   | -655.2   | -208.2   | -82.9    | -130.3   | -47.2    | -64.9    |
| 신용잔고     | 1502.0   | 4359.5   | 5938.3   | 4015.6   | 4065.3   | 4001.4   | 4087.3   | 4088.7   |
| 미수금      | 145.1    | 240.2    | 192.3    | 154.4    | 153.1    | 163.7    | 156.8    | 159.7    |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설정 잔액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10/11(화)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
| 전체 주식형    | 104,208 | -1,029 | 246   | 135      | -8       | 1        | -39      | 25       |
| (ex. ETF) |         | -3,964 | 133   | 41       | -62      | -9       | -57      | 13       |
| 국내 주식형    | 72,124  | 5,198  | 388   | 149      | -3       | 15       | -8       | 46       |
| (ex. ETF) |         | 2,245  | 268   | 56       | -58      | 6        | -32      | 33       |
| 해외 주식형    | 32,084  | -6,227 | -142  | -14      | -5       | -15      | -31      | -21      |
| (ex. ETF) |         | -6,210 | -135  | -14      | -5       | -15      | -25      | -21      |
| 주식 혼합형    | 12,320  | 460    | 28    | -6       | -9       | -2       | -4       | -3       |
| 채권 혼합형    | 19,644  | 86     | -288  | -34      | 28       | -33      | -62      | -40      |
| 채권형       | 46,888  | -5,905 | -63   | -14      | 84       | -29      | 39       | 29       |
| MMF       | 63,549  | -4,587 | 7,243 | 389      | -429     | 1,125    | 1,777    | -1,560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국 가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10/18(화) |
|-------|--------|--------|--------|----------|----------|----------|----------|----------|
| 한 국   | -5,373 | -2,333 | 758    | -5       | 380      | 38       | 220      | 125      |
| 대 만   | -9,744 | -622   | 626    | 115      | 263      | 80       | 258      | -91      |
| 인 도   | -239   | -1,156 | 251    | 132      | 136      | -17      | -        | -        |
| 인도네시아 | 1,985  | -28    | 167    | 65       | 106      | -19      | 19       | -4       |
| 태 국   | -717   | -551   | 224    | 25       | 98       | 22       | 79       | -        |
| 남아공   | -2,184 | -69    | 37     | -94      | 160      | -78      | 49       | -        |
| 필리핀   | 433    | 68     | 32     | 3        | 11       | 12       | -1       |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 구 분                   | 2010년    | 10/11(화) | 10/12(수) | 10/13(목) | 10/14(금) | 10/17(월) | 10/18(화) |
|-----------------------|----------|----------|----------|----------|----------|----------|----------|
| 회사채 (AA-)             | 4.27     | 4.30     | 4.27     | 4.22     | 4.23     | 4.28     | 4.27     |
| 회사채 (BBB-)            | 10.26    | 10.24    | 10.21    | 10.16    | 10.16    | 10.21    | 10.20    |
| 국고채 (3년)              | 3.38     | 3.48     | 3.45     | 3.40     | 3.41     | 3.46     | 3.45     |
| 국고채 (5년)              | 4.08     | 3.61     | 3.58     | 3.53     | 3.54     | 3.60     | 3.59     |
| 국고채 (10년)             | 4.52     | 3.86     | 3.84     | 3.78     | 3.77     | 3.84     | 3.84     |
| 미 국채 (10년)            | 3.36     | 2.15     | 2.21     | 2.18     | 2.25     | 2.15     | -        |
| 일 국채 (10년)            | 1.13     | 1.00     | 1.00     | 1.02     | 1.02     | 1.03     | -        |
| 원/달러                  | 1,134.80 | 1,164.50 | 1,166.65 | 1,155.90 | 1,156.00 | 1,140.50 | 1,145.60 |
| 원/엔                   | 1,392.56 | 1,519.00 | 1,506.00 | 1,505.00 | 1,495.00 | 1,487.00 | 1,492.00 |
| 엔/달러                  | 81.49    | 76.70    | 77.47    | 76.82    | 77.37    | 76.71    | 76.81    |
| 달러/유로                 | 1.33     | 1.36     | 1.38     | 1.37     | 1.38     | 1.37     | 1.37     |
| DDR3 1Gb (1333MHz)    | 1.09     | 0.66     | 0.66     | 0.66     | 0.66     | 0.66     | -        |
| NAND Flash 16Gb (MLC) | 4.84     | 3.03     | 3.04     | 3.04     | 3.03     | 3.03     | -        |
| CRB 지수                | 327.11   | 310.51   | 311.14   | 310.97   | 317.18   | 314.56   | -        |
| LME 지수                | 4,164.25 | 3,327.0  | 3,407.8  | 3,326.2  | 3,396.1  | 3,374.3  | -        |
| BDI                   | 1,773    | 2,106    | 2,127    | 2,155    | 2,173    | 2,160    | -        |
| 유가 (WTI, 달러/배럴)       | 89.84    | 85.81    | 85.57    | 84.23    | 86.80    | 86.38    | -        |
| 금 (달러/온스)             | 1,405.90 | 1,661.00 | 1,682.60 | 1,608.50 | 1,683.00 | 1,676.60 | -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         | 기초자산<br>KOSPI200 | 최근월물<br>1112월물 | 베이스스 |       |      | 거래량     | 미결제약정   |        |
|---------|------------------|----------------|------|-------|------|---------|---------|--------|
|         |                  |                | 이론   | 마감    | 평균   |         |         | 증감     |
| 10월 12일 | 236.66           | 236.60         | 1.32 | -0.06 | 0.30 | 322,491 | 107,734 | 1,683  |
| 10월 13일 | 238.09           | 238.30         | 1.31 | 0.21  | 0.14 | 332,254 | 106,572 | -1,162 |
| 10월 14일 | 239.67           | 240.60         | 1.29 | 0.93  | 0.18 | 301,150 | 107,398 | 826    |
| 10월 17일 | 243.49           | 243.80         | 1.24 | 0.31  | 0.38 | 258,030 | 107,097 | -301   |
| 10월 18일 | 239.89           | 239.00         | 1.22 | -0.89 | 0.04 | 259,821 | 107,133 | 36     |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         | 외국인    | 개인     | 기관종합  |       |        |     |       |      |
|---------|--------|--------|-------|-------|--------|-----|-------|------|
|         |        |        | 증권    | 투신    | 은행     | 보험  | 기금    |      |
| 10월 12일 | 600    | -1,062 | 995   | 393   | -178   | 64  | 643   | 9    |
| 10월 13일 | -2,264 | 679    | -346  | -17   | -1,226 | 289 | 736   | -66  |
| 10월 14일 | 43     | -3,109 | 2,307 | 1,097 | 663    | 15  | 497   | 0    |
| 10월 17일 | -1,204 | 1,272  | 1,201 | 759   | -547   | 164 | 685   | 0    |
| 10월 18일 | -1,662 | -186   | 686   | 620   | -489   | 27  | 445   | 16   |
| 누적포지션   | -4,382 | -1,604 | 8,778 | 238   | 352    | 193 | 8,150 | -107 |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         | 프로그램 전체 |     |     | 비차익거래 |     |     | 차익거래 |     |      | 차익거래잔고 |       |
|---------|---------|-----|-----|-------|-----|-----|------|-----|------|--------|-------|
|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 10월 12일 | 755     | 696 | -59 | 472   | 580 | 108 | 284  | 116 | -168 | 10,011 | 6,497 |
| 10월 13일 | 896     | 885 | -11 | 555   | 536 | -19 | 341  | 350 | 9    | 9,989  | 6,434 |
| 10월 14일 | 598     | 775 | 177 | 418   | 635 | 217 | 180  | 140 | -40  | 10,013 | 6,414 |
| 10월 17일 | 517     | 722 | 205 | 361   | 573 | 213 | 157  | 149 | -7   | 10,027 | 6,414 |
| 10월 18일 | 637     | 717 | 80  | 498   | 638 | 140 | 139  | 79  | -6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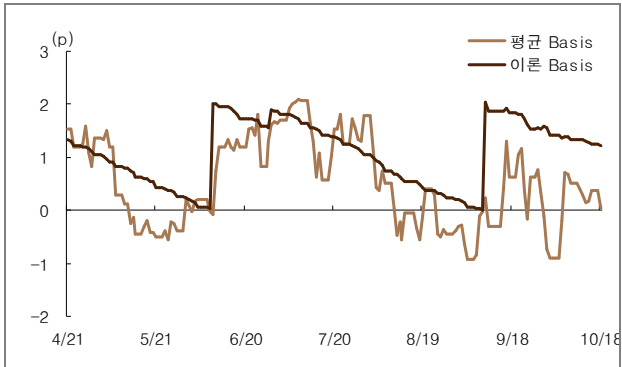
###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 콜옵션   |        |         |       | 행사가격   | 풋옵션   |        |       |       |
|-------|--------|---------|-------|--------|-------|--------|-------|-------|
| 변동성   | 미결제증감  | 거래량     | 현재가   |        | 현재가   | 거래량    | 미결제증감 | 변동성   |
| 25.98 | 13,784 | 453,804 | 1.61  | 255.00 | 17.65 | 131    | 11    | 34.21 |
| 25.24 | 7,250  | 417,125 | 1.96  | 252.50 | 15.60 | 75     | -10   | 33.33 |
| 26.44 | 1,481  | 172,240 | 2.79  | 250.00 | 14.00 | 1,172  | 116   | 34.17 |
| 27.26 | -130   | 49,253  | 3.70  | 247.50 | 12.40 | 1,423  | 410   | 34.48 |
| 27.36 | 948    | 46,737  | 4.60  | 245.00 | 10.90 | 5,439  | 323   | 34.73 |
| 28.55 | 1,219  | 27,567  | 5.90  | 242.50 | 9.60  | 7,396  | -872  | 35.34 |
| 28.70 | 2,888  | 31,359  | 7.10  | 240.00 | 8.30  | 22,160 | 1,778 | 35.46 |
| 28.45 | 451    | 6,627   | 8.35  | 237.50 | 7.45  | 29,845 | -576  | 37.00 |
| 28.66 | 451    | 3,812   | 9.85  | 235.00 | 6.35  | 33,205 | 2,872 | 37.03 |
| 29.87 | -22    | 1,296   | 11.70 | 232.50 | 5.55  | 21,836 | 971   | 37.91 |
| 30.33 | 98     | 1,087   | 13.50 | 230.00 | 4.80  | 56,908 | 3,488 | 38.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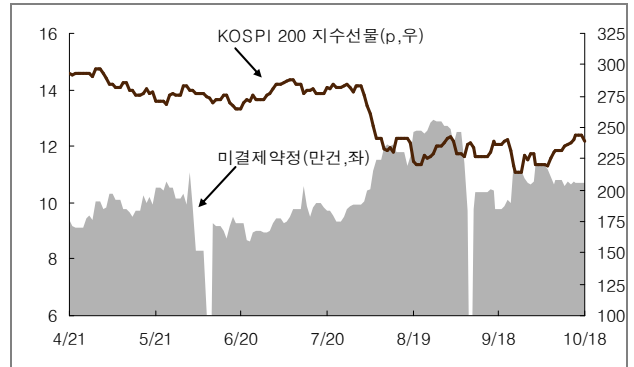
##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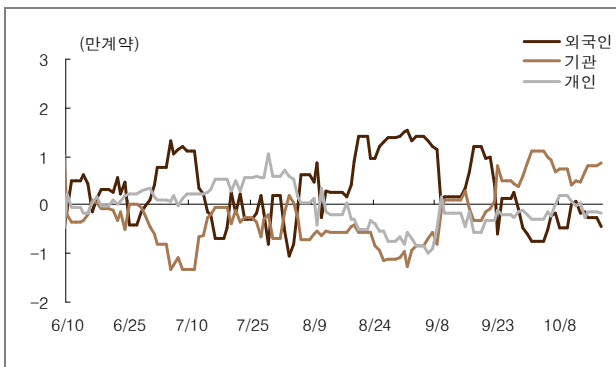
- 평균 Basis: 0.04 (전 거래일 대비 0.34 하락)
- 이론 Basis: 1.22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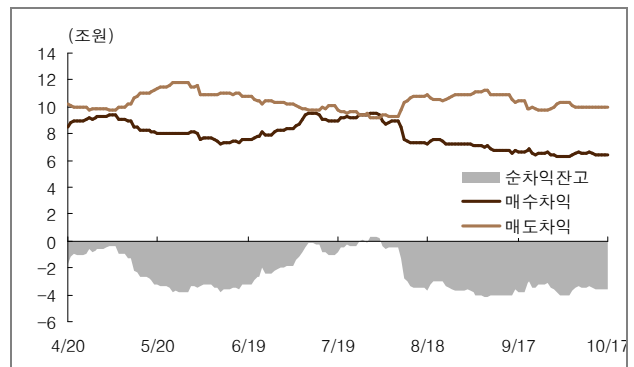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6 계약 증가한 107,133 계약
- 선물가격(239.00): 전 거래일 대비 4.8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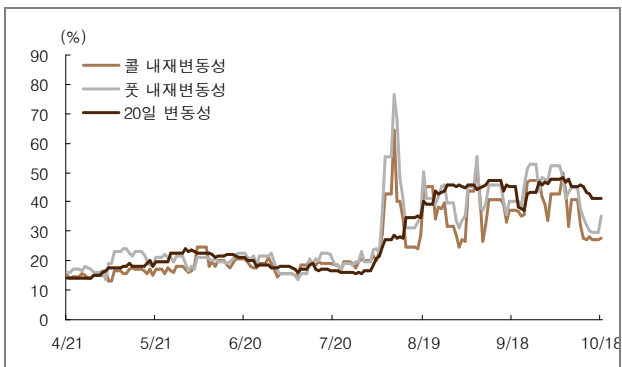
- 외국인: 1,662 계약 순매도
- 기관: 686 계약 순매수 / 개인: 186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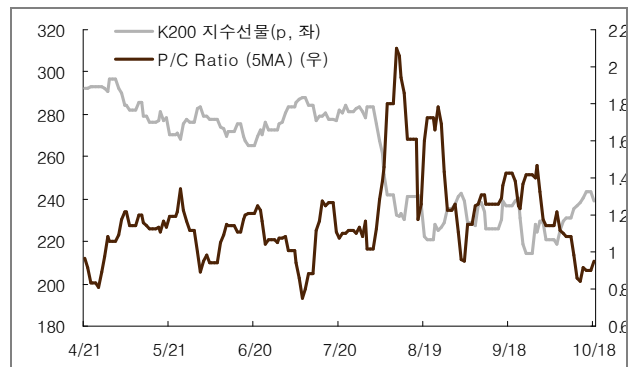
- 차익거래: 60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398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7.5% / 풋 35.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41.32%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0  | 11   | 12  | 13   | 14  |
| 유럽><br>10월 섀넥스 투자자 기대지수<br>(-18.5, -18.0, -15.4)  | 韓><br>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br>(5.7%, 5.7%, 6.6%)<br>美><br>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br>(88.9, 88.8, 88.1)<br>유럽><br>EFSF 슬로바키아 의회 표결(마지막)   | 韓><br>9월 은행가계대출<br>(448.7조원, n/a, 448조원)<br>美><br>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br>(1.3%, n/a, -4.3%)<br>유럽><br>ECB 첫번째 달러 옵션<br>(5.3%, 2.1%, 4.2%)<br>日><br>8월 기계수주 YoY<br>(2.1%, -3.6%, 4.0%)<br>9월 공업기계 수주 YoY<br>(20.3%, n/a, 15.2%) | 韓><br>10월 금통위 금리결정<br>(3.25%, 3.25%, 3.25%)<br>美><br>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br>(40.4만, 40.5만, 40.1만)<br>8월 무역수지<br>(\$-45.6B, \$-45.8B, \$-44.8B)<br>中><br>9월 무역-수출 YoY<br>(17.1%, 20.5%, 24.5%)<br>9월 무역-수입 YoY<br>(20.9%, 24.2%, 30.2%) | 韓><br>G20 재무장관 회담<br>9월 수출물가지수 YoY<br>(5.8%, n/a, 1.8%)<br>9월 수입물가지수 YoY<br>(14.0%, n/a, 10.0%)<br>美><br>9월 수입물가지수 YoY<br>(13.4%, 12.4%, 13.0%)<br>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br>(57.5, 60.2, 59.4)<br>유럽><br>EFSF 슬로바키아 재표결<br>그리스 PSI 마감(예상)<br>9월 유로권 CPI YoY<br>(3.0%, 3.0%, 3.0%)<br>中><br>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br>(6.1%, 6.1%, 6.2%)<br>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br>(6.5%, 6.9%, 7.3%)<br>9월 신규 위안 대출<br>(470.0B, 550.0B, 548.5B)<br>9월 통화공급-M2 YoY<br>(13.0%, 14.0%, 13.5%)<br>日><br>9월 기업물가지수 MoM<br>(-0.1%, -0.2%, -0.2%) |
| 17  | 18   | 19  | 20   | 21  |
| 韓><br>9월 백화점 매출 YoY<br>(6.5%, n/a, 8.3%)<br>9월 할인점 매출 YoY<br>(-1.1%, n/a, 2.0%)<br>美><br>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br>(-8.48, -4.00, -8.82)<br>9월 산업생산 MoM<br>(0.2%, 0.2%, 0.2%)<br>실적발표><br>美 시티그룹, 웰스파코 | 美><br>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br>(n/a, 6.4%, 6.5%)<br>中><br>3Q 실질 GDP YoY<br>(9.4%, 9.5%, 9.6%)<br>9월 산업생산 YoY<br>(13.8%, 13.4%, 13.5%)<br>9월 소매판매 YoY<br>(17.7%, 17.0%, 17.0%)<br>9월 Actual FDI YoY (미확정)<br>(n/a, n/a, 11.1%)<br>실적발표><br>美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br>골드만 삭스, 인텔, 야후 | 美><br>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br>(n/a, n/a, 1.3%)<br>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br>(n/a, 3.8%, 3.8%)<br>9월 주택건설 착공 MoM<br>(n/a, 3.9%, -5.0%)<br>9월 건축 허가 MoM<br>(n/a, -2.4%, 3.2%)<br>실적발표><br>韓 KT&G, 대한항공<br>美 US뱅크프, BNY 멜론, 아멕스            | 美><br>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br>(n/a, n/a, 40.4만)<br>9월 경기선행지수 MoM<br>(n/a, 0.2%, 0.3%)<br>10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br>(n/a, -9.0, -17.5)<br>9월 기준주택매매 MoM<br>(n/a, -2.5%, 7.7%)<br>실적발표><br>韓 LG화학, 제일기획,<br>LG디스플레이<br>美 AT&T, 샌디스크,<br>마이크로 소프트  | 유럽><br>(10/23) EU 정상회담<br>실적발표><br>韓 대우건설, 하나금융지주,<br>POSCO<br>美 맥도날드   |
| 24  | 25   | 26  | 27   | 28  |
| 유럽><br>10월 PMI-제조업<br>10월 PMI-서비스<br>日><br>9월 무역-수출 YoY<br>9월 무역-수입 YoY<br>실적발표><br>韓 삼성엔지니어링<br>美 캐터필러, 넷플릭스,<br>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美><br>8월 S&P/CS 20개 도시 MoM SA<br>10월 소비자 기대지수<br>8월 주택가격지수 MoN<br>10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br>中><br>9월 선행지수 (미확정)<br>EU-중국 정상회담<br>실적발표><br>韓 LG생활건강, 삼성테크윈,<br>SBS<br>美 제록스, US스틸, 델타항공  | 韓><br>3Q 실질 GDP YoY<br>美><br>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br>9월 신규주택매매 MoM<br>실적발표><br>韓 LG전자, 삼성전기, GS건설<br>美 스프린트 넥스텔, 비자,<br>엑손모빌  | 韓><br>10월 소비자대지수<br>美><br>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br>3분기 GDP 연간화 QoQ<br>9월 미결주택매매 MoM<br>10월 BOJ 회의<br>실적발표><br>韓 현대제철, 두산, 유한양행,<br>동아제약, 대웅제약, 전북은행,<br>두산중공업, 삼성SDI,<br>서울반도체, 하이닉스,<br>LG유플러스<br>美 다투케미칼                               | 美><br>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br>日><br>9월 국내 CPI YoY<br>9월 산업생산 YoY<br>9월 자동차생산 YoY<br>실적발표><br>韓 녹십자, LG생명과학, 한미약품,<br>삼성전자, 현대건설, KB금융,<br>삼성물산, 에스원, 현대글로비스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